

Quo

Vadis

탄핵정국

정치적 불확실성 조속히 제거해야 경제 살아 국회는 대통령 진퇴 결정하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앞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는 조속히 결정하라. 지난 11월 29일 박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 성명 발표에 따라 국회의 결정 여하에 따라 사태 수습과 국가 미래의 방향이 설정되게 됐다.

여·야는 지금 바로 머리를 맞대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탄핵으로 가든지 협상을 통해 퇴임 로드맵을 작성하여 결정하든 그것은 국회의 몫이다. 여·야가 만나지도 않고 데모대에서 선동만 하면서 '즉각 하야'라는 공포탄만 쏘아대는 몇몇하지 못한 행동들은 분명 역풍을 자초할 것이고 이미 그런 바람이 일고 있다.

보라! 우리 경제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제조업의 가동율이 외환위기 때인 '97년 이후 최저인 70.3%, 1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5.8로 7년 7개월만에 최저치, 그리고 6백대 기업 12월 경제실사지수(BSI)는 전망치 91.7로 100%를 밑돌고 있다. 그리고 내년 실업율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3.9%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경제침체는 정치적 혼란이 주원인이어서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큰 차질없이 경제는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정국혼란의 장기화는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야당은 거리의 정치에 나설 게 아니라 여당과 함께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외교문제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우리에게 도전이다.

탄핵정국이 대선정국으로 이어지면 대미외교는 1년 이상 파행을 면치 못할 수 있다. 여기에 북핵 변수는 상존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의 입지가 위태로울 수 있다. 국정운영에 한 치의 방심도 허용돼선 안 되는 상황이다. 모든 국민적 에너지는 '탄핵'이든 '질서 있는 퇴진'이든 국정혼란의 조기 수습에 돌려져야 한다. 박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엄히 물어야 하겠지만 대통령직(Presidency)을 범죄 집단과 공모해 불법이익을 나누는 자리로 만들면서까지 대통령(President)을 범죄자로 몰아도 되는 것인가에 국민적인 성찰도 있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데모에 의하여 대통령의 진퇴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데모에 의하여 진퇴가 결정된다면 총칼을 든 군부에 의한 찬탈과 무엇이 다른가? 본질적으로 폭력에 의한 정권 탈취라는 헌법파괴행위는 내용면에서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번에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위기를 넘기는 전통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관련 기사 2~3면〉



'취재 현장의 목격자들'을 크게 소개한 주요 신문들.

대한언론인회 2016 대한언론상 동아일보 편집국 특별취재팀 수상

‘총선 이후, 이제는 경제다’ 4부작 17회 기획물

2016년 대한언론상은 동아일보 편집국 특별취재팀이 차지했다.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은 금년 ‘총선 이후, 이제는 경제다’ 제4부작 17회 기획물을 통해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으로 산업 대개조에 나서야 한다는 수준 높은 기사로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줘 이번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이병대 회장은 11월 28일 시상식에서 ‘대한언론인회가 언론창달의 꿈을 실현하는데 작년 9월 이후 금년 9월까지의 기사 가운데 가장 적합한 보도였다’고 격려했다.

〈관련 기사 17면〉



본회 출간 ‘취재현장의 목격자’ 주요신문 주목…재판발행

대한언론인회가 간행한 ‘명기자 명데스크 못다 한 뒷이야기 33, 취재현장의 목격자들’에 대해 주요 신문에서 지면을 크게 할애, 보도해 주목을 끌고 있다. 동아일보는 지난 11월 25일 A26면 4분 1 지면을 통해 ‘원로언론인들 취재기로 본 한국 현대사’ 제목으로 책표지 사진 등을 게재하면서 자세히 소개했고 문화일보도 같은 날짜 석간 25면 톱으로 지면의 절반 가량을 통해 이 책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했다. 주문도 쇄도해 본회는 재판기로 결정했다.

〈관련 기사 16면〉

긴급 좌담

교수들 시국선언, 시민 수준만도 못해

탄핵정국 빨리 끝내라

혼돈정국과 우리의 대응

사회: 최근의 사태를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어떤 사태와 흡사하다고 보나?

송복: 조선조의 왕이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모든 정상들이 제 기능을 못해왔다. 우리가 성군이냐 칭하는 세종대왕도 선조때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에서 보면 정치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민주화 이후 대통령은 각종 실책과 정경유착 등으로 문제점을 노출했다.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도 엄청난 업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엇갈렸다.

과거는 대통령 주변에서 단순히 돈을 받아 챙기는 개인 비리가 많았다면, 이번은 문화융성이라는 국가정책 사업을 빌미로 기업체에 손을 벌렸다는 점이 다르다.

국민들은 무식하고 교만한 최순실이 대통령을 잘못 보필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느끼고 있다. 이로 인한 촛불시위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져 모범을 보였다.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은 87년 민주화 항쟁과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층 업그레이드된 느낌이다. 이번에 성숙된 시위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새로운 도약을 할 전기를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다.

남시욱: 우리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북핵 위기가 상존하고 경제도 어려운데 최순실 사태까지 터져 국민들은 절망과 좌절·경악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불만과 분노의 시대이고, 국내적으로도 소득 양극화를 질타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특히 입시 지옥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의 불만도 높다. 이번 시위 때 수능을 끝낸 수험생들까지 거리로 뛰쳐나와 불만을 터뜨렸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는지 하는 것이

큰일인데, 정치권이나 언론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차분하고 신중하게 여론을 이끌어 나가야 할 언론이 미확인 정보를, ‘아니면 말고’식으로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사회: 송 교수는 이번 사태를 조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데 비해 남 교수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는 등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찰 발표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신문들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박 대



남시욱 전 문화일보 사장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임종건 전 서울경제 사장

참석자

남시욱 (본회 회우·세종대 석좌교수·전 문화일보 사장)

송복 (본회 회우·연세대 명예교수)

임종건 (사회: 본회 주필·전 서울경제 사장)

때 : 2016년 11월 21일 곳 : 프레스센터 19층 인터뷰룸
 정리 : 서옥식·조희곤 본회 편집위원 사진 : 박문두 본회 편집위원

통령을 공범 혹은 주범이라고 보도했는데...

송복: 대통령은 공범인 게 맞다. 따라서 탄핵으로 가야 마땅하다. 그런데 정치권은 탄핵문제에서 나라는 생각 않고 자기 진영에게 유리하도록 계산만 하고 있다. 국민은 이번 사태에 수치를 느끼고 있는데 정치권은 엉뚱한 계산만 하고 있으니 문제이다. 계산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법치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진행시켜야 한다. 대통령이 물러나도록 하든가 그 자리에 있게 하든가, 선택

해 시국선언이나 하고... 이에 반해 시민은 차분하고 냉정하다. 한마디로 시민의 수준이 훨씬 높다.

남시욱: 검찰도 큰 문제이다. 7월 26일 조선일보가 ‘최순실 게이트’를 터뜨렸는데도 검찰은 바로 수사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가 10월 말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그것도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따라가는 등 능장수사 하기에 급급하다.

이런 가운데 언론은 그동안 계속 추측 보도만 하고... 처음에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청와대가 나중에 이상한 이유를 들어 거부

을 설립한 것이란 대통령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인사문제에 최순실을 조직적·반복적으로 개입시킨 것은 큰 문제이다.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국정원장은 물론, 초대 내각 인선에까지 최순실의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 차라리 최순실을 보좌관으로 임명하는 등 직책을 맡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대통령들은 주로 친·인척이나 측근의 비리에 연루돼 곤욕을 치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그런 면에선 비교적 자유로워 적어도 부정이나 부패는 없을 줄 알았다. 대통령은 비리를 우려하여 동생들까지 멀리했지 않았나? 그런데 최순실이라니 한심스럽다. 탄핵정국에 들어가도 국정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트럼프 당선 축하 사절로 하급 관리를 보내고 APEC(아태경제협력체) 회의에도 총리를 보내야 하는 우리 처지가 안타깝다.

사회: 이번에 검찰은 현직 대통령을 사기 등의 범죄로 몰아 공범이니 주범이니 하며 낙인찍었다. 그냥 혐의 상태로 놔두고 특검으로 넘겨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송복: 검찰은 보통 개인한테도 그렇게 한다. 검찰은 일단 그렇게 혐의를 씌우지만, 재판에서 지면 ‘아니면 말고’하는 식이다. 이건 검찰의 행태이다. 재판을 통해 사실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빨리 법적 절차를 밟아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언론이 유언비어성 도청도설(道聽塗說;길거리 뜬소문)을 전하며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1987년 이후 대통령제를 시행하다 보니 정상에 오른 대통령이 제 몫을 못하더라. 이런 체제하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일반 국민보다 나은 대통령이 나올 수

촛불집회 향후사태 안심 못해...강경세력 시위 눈치보기

을 해야 한다. 언론도 문제가 크다. 언론은 내가 기자생활을 하던 60년대에 머물러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영국의 <더타임스>처럼 냉정하고 차분하지 않고 매사에 흥분하며 옐로 페이퍼(황색 언론)로 전락하고 있다. 국민이 흥분하면 이를 바로잡아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어느 언론도 그렇지 못하다.

대학 교수들도 문제이다. 교수의 80% 가량은 수준 이하라고 생각한다.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별거 아닌 문제에 대

로 돌아서면서 수사에 혼선이 생겼다.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가 허구나 거짓말로 가득 찬 소설이라면서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국가 최고 수사 기관을 청와대가 이렇게 비하하니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러나 검찰이 이번 미르와 K스포츠재단 문제 수사에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 실제로 대통령이 재단설립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는 없다. 수출 길도 막히고 경제도 어려워 한류를 살리려고 재단

없다.

사회: 탄핵을 하면 대통령은 권위가 돼 총리가 그를 대행하게 된다. 때문에 총리를 먼저 선정해놓고 탄핵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남시욱: 그건 아니다. 탄핵을 하면 현재의 총리가 자동적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다. 그러나 이에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의 총리 선정 요구에도 야당은 이런 저런 이유로 반대해왔다. 야당은 진퇴유곡에 처해 있는 셈이다.

대통령제 폐해 막을 개헌도 추진해야

긴급 좌담

안보 해치는 세력에 권력맡길 수 없어

2면에서 이어집니다

남시욱: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있기는 하나 그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국정교과서 문제에서 대통령과 반대의 입장에서 있다. 탄핵 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에서 총리의 생각이 대통령과 다르면 대혼란이 온다.

특히 대북정책에서 그렇다. 박 대통령은 대북 강경정책을 쓰고 있는데 말이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로 한류의 중국 진출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탄핵정국에서 총리선임이 이처럼 안보상 예민한 문제임에도 여·야는 당리당락 차원에서 서로 싸우기만 하고 있다.

야당은 시위도중 사망한 백남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의 사인이 전적으로 경찰이 쏜 물대포 때문이라며 경찰을 매도했다. 그런 사건은 야당이 집권해도 발생할 수 있다. 그 때도 그럴 것인가? 사인에 논란이 있는 경우는 부검이 원칙이지만, 끝내 부검은 유가족과 시위꾼들에 의해 거부됐다. 경찰은 두 차례나 부검을 실시하려 했으나, 부검반대 측과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부검을 포기했다. 결국 진실규명은 사라지고 공권력의 실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말았다.

송복: 야당은 현재의 총리를 반대하면서도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에는 답을 안하고 있다. 탄핵정국에서 야당이 총리도 안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무조건 하야하라는 야당 주장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00만 명이 촛불 들고 나오면 대통령은 무조건 하야해야 하는가. 여당에 유력한 대선 후보가 없는 가운데 대통령을 끌어내면 60일 내에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데 대통령을 내세울 수 있는 정당은 야당 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야당은 정치공학적으로만 가고 있는 느낌이다.

현 정국의 해법은 국회에서 새로운 총리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통령을 탄핵해서 현재의 황교안 총리 체제로 가는 방법이 있다. 현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탄핵과 함께 개헌도 추진해야 한다. 국방과 외교는 대통령이, 나머지는 총리한테 맡기는 이원집정부제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대통령을 파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지 이에 소극적이다. 이 나라의 진로와 운명이 정치인에게 달려 있다는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 한

북핵위기 잇고 있나 제구실 못하는 언론 국민들은 좌절 경악



법적절차에 따라 국정후란을 조기 수습해야 한다고 말하는 좌담 참석자들. 왼쪽부터 송복 교수, 남시욱 석좌교수, 임종건 주필.

국의 진로를 이끌어갈 주체는 따로 있다. 기업과 고위직층이 그들이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핵심층이다.

남시욱: 거국내각이나 책임총리나 하는 논의도 이제는 끝났다고 본다. 이 문제는 야당이 하야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이제는 탄핵정국으로 가고 있다. 현재 황 총리도 국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됐는데 그를 배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

동에 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회: 내각책임제는 리더십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갈아 치우는 데는 더 효과적이지 않나?

송복: 각 당이 장점을 놓고 서로 겨루는 정당정치를 해야 내각책임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정당정치가 아닌 '너 죽고 나 살자'며 상대방의 실패를 유도하는 식의 파당정치를 벗어나 않는 한 내각책임제는 맞지 않다.

또 이번과 같은 사태에도 불구하고 10대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벤처기업도 크게 늘어나는 등 성장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매출액 1조원이 넘는 기업이 작년 300여 개였으나, 지금은 500여 개에 달한다. 벤처기업도 2015년 중반 3만여 개에서 지금은 5만여 개로 늘었다. 동남아에 진출한 기업은 베트남만 5,000여 개를 포함, 3만여 개에 달한다. 이처럼 기업과 각 분야의 고위직이 건재하고, 촛불시위에서 보듯이 시민의식이 성숙돼 있어서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다.

남시욱: 나는 송 교수의 견해에 유보적이다. 이번 4차 촛불집회가 큰 충돌 없이 끝났다고 하나 안심할 수는 없다. 아직 조직적인 강경 시위세력이 시위에 가담하지 않았을 뿐이다. 사회가 안전하려면 건실한 중산층이 형성돼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사회 안정을 해치는 세력에는 크게 비리 부패세력, 종북 반미세력, 계급투쟁 세력, 귀족노조, 인기영합적 정치세력 등이 있다.

상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해도 괜찮다고 하는 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우리에게 신경이 쓰인다. 여기에 우리 사회에는 지금 일부 정치권을 포함, 북한이 주장하는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맞장구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 베트남이 적화된 것을 보라. 베트남 평화협정의 종말은 전쟁이었고, 결국 전 베트남의 공산화였다.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 티우베트남정권처럼 안 된다는 보장이라도 있는가! 정치권도 국민도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 탄핵정국을 빨리 끝내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시급하다.

송복: 남 교수 말씀대로 종북 반미세력과 이념 계급투쟁, 귀족노조 등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이런 국정과제 세력이 서구에는 인구의 10% 정도, 특히 선진국은 5% 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20%나 된다. 민주주의의 버팀목인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사회: 11월 12일 촛불 시위 때 사직동 시위현장에 가 보았다. 대로변에서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사직시장 골목의 술집에선 손님들로 북적였다.

시위와 일상생활이 공존하고 있었다. 청와대와 국회는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에 걸맞는 성숙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야당은 정치공학계산 혼란 조장해서는 안 돼

다. 이제는 대통령 탄핵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이것이 그나마 덜 불행한 사태를 막는 길이다.

사회: 대안세력으로서 야당에게는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인가?

남시욱: 그건 아니다. 그렇지만 안보를 등한시하거나 종북적인 생각을 가진 대안세력은 안 된다. 개헌 문제의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 이원집정부제는 생각해볼만 하지만, 내각책임제는 반대한다. 현재의 국회 수준으로 봐서 그렇다. 현재의 5년 대통령 단임제도 좋지 않다. 단임제 하니까 선거 끝나자마자 또 선거운

사회: 이번 촛불시위는 주최측 추산 1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국민들이 참가했는데도 비폭력으로 진행돼 단 한 명의 연행자도 없이 무사히 끝났다.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달라진 시위 문화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송복: 이명박 정권 때의 광우병 시위는 결코 평화적이지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몇 차례의 시위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정치의 수준은 30~40년 전에 머물러 있는데 반해, 시민의식은 크게 성숙해 있다.

남시욱

時論

최순실 게이트 판도라상자 어떻게 열렸나 ‘묻지마 언론재판’ 국민분노 부추겨

‘최순실 게이트’는 조선·중앙·한겨레 언론 3사가 앞장서서 파헤친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언론의 폭로로 세상에 드러났고, 당국의 수사도 이끌어냈으며,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담화도 이끌어냈다. 그리고 그의 하야 요구와 함께 거리의 대규모 촛불시위까지 촉발한 언론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건이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은 과거 그 어느 대형 부정사건과 달리 언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다.

첫째, 보수-우파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박근혜 정권을 코너로 몰아넣은 이들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번 사건의 보도 배경과 동기를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보수세력 일부에서는 이 사건이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 일부 언론과 좌파세력이 꾸며낸 거대한 음모”라고 본다.

둘째, 진보-좌파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독자와 시청자들은 박근혜 정권에 큰 타격이 되는 이들 보도들을 크게 반겼다. 이 때문에 보도에 상당한 선정성이나 오보의 소지 등 무리가 드러났지만 전체적으로 진실을 보도한 언론의 용기 있는 과거라고 찬양했다. 진보-좌파 세력은 근거해 박 대통령의 어떤 해명도 납득하지 않고 그의 하야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일반 국민들은 언론의 보도 내용에 충격과 실망을 느끼면서도 이 사건을 큰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정치불안을 싫어하기 때문에 야당의 박 대통령 하야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셋째, 청소년층의 반응인데, 이들은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으나 그동안 한국사회를 풍미한 금수저-흙수저 논쟁에 큰 영향을 받은 층이다. 이 때문에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또는 횡령 혐의에 못지않게 그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에 분노한다. 그런데 최순실 사건은 순수한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관점은 약간 달라진다.

필자는 한국언론이 이번 최순실 사건 보도과정에서 보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이다. 우선 이 사건이 어떤 과정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조선·한겨레·중앙 3사가 주도적 역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맨 먼저 취재에 착수한 매체는 조선일보였다. 조선은 2016년 4월부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서 시작되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이어지는 부정부패 혐의에 주목하다가 두 재단의 비리혐의를 발견했다. 그 결과

가 TV조선에 폭로되었다.

이어 한겨레는 9월 20일자에서 재벌들이 출연해 만들어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최순실이 관여했다는 최초의 기사를 터뜨렸다. 이것이 ‘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된 단초였다. 이 때문에 보수 우파 세력은 한겨레를 박근혜 정권 타도의 선봉장으로 보고 있다.

최순실 보도의 제3주자인 JTBC는 2016년 10월 24일 메가톤급 보도를 방영했다. 이날 JTBC 뉴스룸은 최순실이 버리고 간 컴퓨터에서 밝혀졌다면 최순실이 44개의 대통령 연설문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받았다고 그의 국정농단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된 것은 지

JTBC를 거쳐 다시 TV조선으로 돌아간 셈이다. 마침내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사과담화는 다시 언론의 반박대상이 되었다. JTBC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지 한 시간만인 이날 오후 5시쯤 ‘사회부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로 분석된 ‘비공개 파일’을 오늘 밤 8시 뉴스룸에서 공개한다”고 예고한 다음 “최순실의 PC엔 대통령의 인사와 대한민국의 국정까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정작 그 시간이 되자 JTBC는 다시 최순실 문건을 공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대행사 선정에도 최순실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TV조선과 한겨레 및 중앙일보가 최순실 사건의 보도를 통해 이를 다른 매체에 확산시킨데 대해 한국언론노조 기관지인 미디어오늘은 “TV조선·한겨레·JTBC의 콜라보, 최고권력을 무너뜨렸다”고 썼다. 이 신문은 두 재단의 모금 의혹에 대해

이 귀국해 검찰에 출두한 것은 10월 30일이었다.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검찰조사를 받기 시작한 것은 11월 2일이어서 이제 막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셈이다. 그런데도 언론은 이미 이때 사건의 모든 사실이 밝혀지길라도 하듯 사실상의 결론을 내고말았다. 이 바람에 분노한 국민들, 특히 초등학생들까지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를 연일 벌였다. 대통령의 하야는 헌정중단을 의미하는데, 북핵과 경제위기로 비상사태에 있는 나라가 아직 진상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는 문제로 대뜸 사태를 이렇게 만든 데는 언론의 위력이 성급하게 작용한 탓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언론과 달리 한국언론은 무슨 일이 터지면 일단 크게 보도해 놓고 본다. 이것은 한국언론의 전통적인 속보주의와 매체간의 속보경쟁이 초래한 만성병이다. 닉슨 대통령의 하야를 몰고 온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미국 신문들을 1단 기사로 시작해서 혐의사실이 나타남에 따라 기사가 점점 커져 나중에는 톱기사로 발전시켰다. 확실한 근거가 드러나지 않는 사건에 대한 한국언론의 묻지마식 대서특필은 언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규정한 미확인 보도의 명시 원칙과 미확인 사실의 과대 편집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필자는 한국언론계가 이번 최순실 사건 보도를 냉정하고 차분하게 점검하고 평가해 볼 기회가 오기를 기대한다.

셋째, 한국언론은 아직 용의 단계나 혐의 단계에 지나지 않는 사건을 일방적인 증언만으로 침소봉대하는 체질화된 습성이 있다. 여러 언론매체들이 경쟁적으로 이 같은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기 때문에 일단 혐의 선상에 오른 용의자나 피의자는 어느새 진범처럼 되고 만다. 이른바 ‘언론재판’이다. 이번에도 언론들은 박 대통령이 두 재단 설립동기에 대해 문화체육 분야를 집중지원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며 어려운 체육 인재들을 키움으로써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익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 점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무조건 재단설립이 나쁜 것으로 몰아붙였다.

만약 대통령이 순수한 의도에서 재단 설립을 추진했다면 청와대가 여기에 개입했다 하더라도 정책상의 잘못을 따질 수는 있겠지만 이를 하야 사유는 되기가 어려운데도 이를 범죄시했다. 언론윤리실천요강에서 규정한 관계자의 답변기회 제공, 피의사실의 검증원칙, 형사피의자의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하는 행태이다.

미확인 사실 과대편집금지 원칙에 위배

난 2014년 3월 28일 박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을 방문하면서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의 내용을 담은 한글 파일 형태의 연설문 파일이었다.

이 보도는 정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더불어 하야 요구를 촉발했다. JTBC가 이 같은 대형 뉴스거리를 터트리자 이번에는 TV조선이 다시 나섰다. 그동안 최순실에 대한 본격적인 보도를 중단했던 TV조선은 바로 이튿날인 25일 최순실이 독일로 출국하기 전의 인터뷰 영상,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용 의상 제작을 지휘하는 영상, 최씨가 인사 검증과 공직자 감찰을 진행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에 개입한 정황 등을 보도했다. 결국 TV조선에서 시작된 최순실 보도는 주도권이 한겨레,

서는 TV조선이, 박 대통령의 측근 실세인 최순실에 대해서는 한겨레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JTBC의 최씨의 국정농단 보도가 결정타였다고 평가했다.

혐의 사실만으로 보도경쟁

최순실 사건은 물론 이상의 세 매체 이외에 다른 대부분의 신문·방송들도 집요하게 보도했다. 그러나 여기서 우선 필자는 중간 점검하는 입장에서 이들 세 매체의 보도방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려 한다. 첫째 문제는 한국언론의 체질처럼 되어버린 성급하고 선정적인 보도태도이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10월 5일이고,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박근혜의 죄, DJ의 죄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가가 커다란 혼란에 빠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상당기간 한국 사회에는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렇다. 몇 가지 상황을 생각해보자.

박 대통령의 가장 큰 죄라면 대한민국 품격 추락시킨 것 DJ는 5대 범죄로 국민 우롱

먼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는 경우이다. 그럴 경우 내년 봄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된다. 정권을 지키려는 보수·우파와 정권을 쟁취하려는 진보·좌파 사이에 일대 결전이 벌어질 것이다. 중간지대에 신당이 생길지, 더불어 민주당과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연합할지, 그래서 선거판이 3분구도가 될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같은 인물이 어디로 갈지, 이 모든 게 중요한 변수이다.

탄핵이 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을 경우에도 혼란은 지속될 것이다. 야당과 반대 세력은 대통령이 헌법에 있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촛불집회가 다시 등장할지 모른다. 한국 사회는 상당한 혼란 속에서 내년 12월 대선을 맞이할 것이다. 여기에 북한에 급변이 발생하거나 한반도에 안보사태가 터지면 변수는 가중된다.

2018년은 대한민국 건국 70년이다. 2017년은 그 고지로 가는 마지막 고비이다. 1948년 건국 이래 70년만에 현대사가 거친 숨을 쉬며 봉우리를 넘는 것이다.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은 70년을 채우지 못하고 69년만에 붕괴됐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공산세습체제도 70고비를 넘지 못할 것이라 분석이 많다. 그런데 엉뚱하게 한국도 70년 문턱에 걸리게 됐다.

권력이 어디로 가든 70년 고비에 서 한국 사회는 현대사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어디서

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 됐나. 역대 대통령들은 왜 엄청난 과오를 남기나. 제도 때문인가, 아니면 인물 탓인가.

이를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좌표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역대 정권의 잘못과 비교해 박근혜는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역대 정권의 실패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골라보자. 민주화 이후만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은 대규모로 국정을 농단했다. 규모로만 보면 최순실보다 심했다. 핵심보직과 국회의원 공천에 관여했다. 안기부 정보보고서도 받고 수십억원 비리를 저질렀다.

노무현 대통령 정권도 친·인척 비리에 시달렸다. 형님은 대표적인 골칫거리였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은 대통령 부인에게서 터졌다. 남편 몰래 기업인에게서 100만 달러를 받은 것이다. 노 대통령은 나중에 이를 알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부영 이바위에서 투신했다.

이명박 정권은 측근 비리 종합세트였다. 형님·선배·친구·비서관에다 처가 식구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형님은 정권의 2인자처럼 행동했다.

김대중(DJ) 정권은 5대 범죄를 저질렀다. 첫째, 핵을 개발하는 적대세력에게 4억5000만 달러를 국민 몰래 뒷돈으로 주었다. 산업은행의 팔을 비틀고 부실기업을 이용했다.

국정원장·남북회담 특사·청와대 수석이 주도했다. 둘째, 정권은 국정원을 이용해 민간인 1,000명을

모든 정권이 잘못 저질러

대통령들은 왜 엄청난 과오 남기나 제도 때문인가 아니면 인물 탓인가

불법 도청·사찰했다. 나중에 국정원장 2명이 감옥에 갔다. 셋째, '홍삼 트리오' 세 아들이 대규모로 이권과 비리에 개입했다. 2명이 감옥에 갔다. 넷째,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기업 회장 2명에게서 1억의 뇌물을 받았다. 현직 비서실장이 호텔 사우나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 그도 감옥에 갔다.

다섯째는 폭력적인 언론탄압이다. 정권 출범 직후인 1998년 3월 9일 밤 박지원 청와대 홍보수석은 술에 취해 중앙일보 사장실에 들어왔다. 그는 신문 논조를 공격하며 발행인·편집인·편집국장을 몰아세웠다.

나중에는 흥분해 유리컵을 바닥에 던졌다. 유리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정권은 비판적인 언론인을 교제하라고 압박했다.

5가지 범죄 중 정권 임기 내에 밝혀진 건 아들 3명의 비리와 언론탄압뿐이다. 4억5000만 달러 뒷돈과 민간인 1,000명 불법 도청, 그리고 박지원의 '호텔 사우나 1억원 뇌물'은 정권이 끝난 후 드러났다. 그리고 모두 사법처리됐다.

만약 3가지 범죄가 김대중 대통령 재임중에 알려졌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DJ는 검찰수사를 받았을 것이다.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리고 많은 국민이 "하야"를 외쳤을 것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탄핵을 추진했을 것이다. DJ와 민주당 정권으로서는 다행스럽게 모든 게 퇴임 이후에 알려졌다. 특검에도 불구하고 DJ는 조사를 받지, 법정에서 지지도 않았다.

박 대통령 사태의 중요한 특징은 모든 게 재임중에 드러났다는 것이다. 한국인은 대통령의 발가벗은 모습을 목격했으며, 이를 고통스럽게 처리해야 하는 비극적 상황에 놓이게 됐다.

현대사 70년에 처음 겪는 일이다. 세월이 흐르면 상처도 아물고 사건은 현대사의 영양분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미래는 미래이고 현재가 너무 고통스럽다.

김대중 정권의 5대 범죄는 '대한민국의 정신을 폭행'한 것이다.

그런데 똑같이 비유하자면 박 대통령의 최대 잘못은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린 것이다.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원성(怨聲)이 하늘을 덮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실정법을 들어 "내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질렀나"라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지휘책임 또는 연대책임이라는 게 있다.

사건의 원인 부분에서 구체적인 책임이 작아도 결과가 위중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대통령은 최태민에서 최순실로 이어지는 40년 원죄가 있다.

대통령은 상당 부분 주변을 잘못 관리한 책임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런데 국가를 책임진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에게는 그것도 숨 막힐 듯한 잘못이다.

물론 지도자 박근혜에게는 공적도 많다. 노무현 정권시절 그는 국가 정체성을 지켜내려는 투쟁의 구심점이었다. 2004년 총선에서는 벼랑 끝에 몰린 보수정당의 잔다르크이기도 했다. 대통령으로서도 적잖은 공적을 기록했다.

북한에 대한 원칙적인 대처, 한·미 동맹 강화, 불법파업 분쇄, 교과서 왜곡에 대한 시정 노력, 노인연금과 공무원 연금개혁...

그런데 이런 게 국민의 머릿속에서 다시 살아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현재는 '추락한 국가의 품격'으로 인한 쇼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 이런 상처가 치유되려면 박 대통령은 더 큰 대가를 치러내야 할지 모른다.

고바우 만평

김성환 (본회 편집위원)



國會議원?
國害의원?

트럼프 시대의 안보

미국은 언제든지
한국 포기할 수 있다

우리가 왜 저들 정치인 생각에 따라야 하나

자주 국방 시작하자



트럼프라는 개인보다 트럼프를 제45대 美합중국 대통령으로 뽑은 미국 시민들의 생각, 트럼프즘(Trumpism)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은 시민이 이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이 통치자를 선택하게 하는 ‘제퍼슨 민주주의’ 제도를 처음으로 채택한 신흥 국가로, 나라를 세운 지 200여 년만에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로 성장한 것이 바로 美합중국이다. 미국 사람들의 애국심은 이러한 자량을 바탕으로 굳어져 있다. 그런데 이 애국심이 최근에 상처를 받기 시작했다.

**트럼프 실용주의, 우리에게 더 큰 부담 요구할 것
10년간 10조원씩 투입하면 자주국방 가능하다**



이상우

본회 회우
전 한림대 총장

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이다. 시민이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국민이다. 교육받은 중산층이 민주 국가의 주류를 이루는 시민이다.

미국의 경우 백인 근로자(white workers)가 미국 정치를 주도해온 시민들이다. 그런데 이들의 불만이 근래에 와서 폭발 직전까지 쌓였다.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의 자유경제체제 속에서 1%의 가진 자가 99%의 대중을 점점 더 가난하게 하면서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졌다.

시장 개방화로 중국산 저가 제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제조업의 쇠퇴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다. 거기다 느슨한 이민정책으로 값싼 노무자들이 들어오면서 일자리를 빼앗기 시작했다. 여기에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자동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나머지 일자리도 빼앗기 시작하였다.

실업의 증가, 고용 조건의 악화 등으로 미국 사회 주류를 이루는 백인 근로자들이 ‘분노한 백인(angry white)’이 되어버렸다. 이들의 불만에 불을 지른 것이 트럼프의 약속이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미국 우선주의’라는 구호는 분노한 백인들을 겨냥한 기폭제가 된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보호무역제도를 부활시켜서라도 외국의 값싼 제품의 수입을 막고 ‘미국에 필요한 사람’만 골라 받는 이민정책으로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켜주겠다고 했다. 세계 분쟁 지역에 더 이상 파병하지 않고 해외 주둔 미군의 규모를 줄여 국방비를 줄이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과감히 추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미국 우선주의’는 이렇게 경제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외

교안보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미국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미국의 군사 우위를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과 호주와의 동맹을 강화하여 미군의 국방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우방국 방어를 위해 미군을 주둔시킨 곳에서는 주둔비의 상당 부분을 그 나라가 담당하게 하겠다고 하고 있다.

미국은 해외 주둔군을 기동타격군으로 재편해가고 있다. 어느 특정 동맹국에 고정배치하여 그 나라 방어를 돕는 기존의 주둔 방침을 바꾸어 어느 곳에 주둔하든 사태가 벌어진 곳에 투입할 수 있도록 군편제를 유연화하고 있다. 기능별 부대를 필요에 따라 조립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재편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군의 태평양-아시아 지역 담당 해병은 ‘해병 원정대(Marine Expeditionary Unit)’로 재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아마도 주한

미군도 고정배치에서 유동적 기동부대로 전환하리라 생각한다. 주둔비 부담도 새로 협상하려 할 것이다. 현재 약 2만8천 명의 주한 미군의 주둔비 중 반쯤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 부대 주둔지의 용지 사용료, 전기료, 수도료, 주거시설 임대료, 민간근로자 임금 등이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정책화되면 우리에게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미국, 해외 주둔군을 기동타격군으로 재편 중 중국·러시아 견제...완전 철군은 하지 않을 듯

이 기회를 우리 국방의 자주화 계기로 삼았으면 어떨까? 우리의 안보를 다른 나라의 정치 지도자의 생각에 맡겨 두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해서이다.

우리는 핵을 가진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 러시아와 중국 등은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이다. 이들의 핵무기를 우리 힘만으로 막아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줄 힘을 가진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사정 때문에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한·미 동맹을 우리의 안보정책의 기초로 삼아 왔다.

우리가 싫어하던 좋아하던 도널드 트럼프가 내년 초부터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트럼프가 취할 대한반도 정책으로 우리의 안보 환경이 영향받을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우리측의 대응책을 현명하게 마련하는 것뿐이다.

이 기회를 우리 국방의 자주화 계기로 삼았으면 어떨까? 우리의 안보를 다른 나라의 정치 지도자의 생각에 맡겨 두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해서이다.

우리는 핵을 가진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 러시아와 중국 등은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이다. 이들의 핵무기를 우리 힘만으로 막아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줄 힘을 가진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사정 때문에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한·미 동맹을 우리의 안보정책의 기초로 삼아 왔다.

아마도 이런 사정은 앞으로도 당분간 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한·미 동맹을 쉽게 포기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국가간 협력도 ‘흥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우리가 미국의 ‘핵확장억제’가 필요해서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면 미국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급변 사태에 대처할 ‘재래식 전력’ 지원을 한국에 부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현재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 군사 강국이다. 미국도 한국의 군사력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일방적으로 미군에 의존하고 우리 스스로의 독자적 방어능력 구축에 게을리해왔다. 복지예산을 100조원 이상 쓰면서도 군사전력 증강비를 10조원 안팎 밖에 쓰지 않았다. 예산만 확보되면 우리의 기술과 능력으로 전력을 크게 늘릴 수 있다. 함정도, 항공기도, 전차도, 그리고 THAAD급

요격 미사일 뿐만 아니라 공격용 유도탄을 포함한 각종 유도탄도 충분히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 스스로가 핵무기 등 2%만 부족한 자주국방 능력을 갖추고 미국

에게 부족한 2%의 지원을 요청하는 수준이 되어야 미국과의 안보협력 흥정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2010년에 ‘국방개혁 307’이라는 ‘능동적 억제’전략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전력증강 계획을 세워 놓았다. 매년 10조원씩 10년만 투입하면 자주국방이 가능해진다.

우리 힘으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군사대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당당하게 미국과 군사협력을 협상하자! 트럼프의 동맹 재조정 움직임에 대비하여 이번 기회에 국방 자주화를 시작하자.

‘예측불허’ ‘변화무쌍’ 트럼프 행정부와 한반도 외교 주도적 트럼프 대응팀 구축하라

미국과 중국이 선도하는
국제질서 다극화 진행 중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현실화되면
국제경제 전반 부정적인 영향 끼쳐
방위분담금·한미FTA 문제 될 수도

아마도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1991년 소련의 붕괴나 2008년 미국 발 세계금융위 기만극이나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기로 기록될 것이다.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바람 속에서 세계 도처에서 소외된 계층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고, 이에 정치인들은 내셔널리즘과 포퓰리즘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러한 경향들이 영국의 브렉시트, 프랑스의 국민전선 장 마리 르뽕의 극우 포퓰리즘,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필리핀의 두테르테 집권 등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미국의 소외된 계층들이 들고 일어났고 결국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트럼프를 지지한 미국 중부의 농촌, 중소도시의 제조업 노동자, 저학력 백인 층들은 동부와 서부의 대도시 주민들과 달리 확대되는 빈부격차 속에 자신들의 일 자리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까지 해체되어가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특히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워싱턴 기성정치의 무기력과 무능력에 분노했다.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는 이들의 분노를 표로 연결시키는데 능란했다. 수많은 스캔들과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선된 것은 중부를 중심으로 하는 소외된 미국 유권자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준다. 그는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들을 대변하면서 미국이 앞으로 해외 개입보다 국내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해야한다면서 고립주의와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시작은 미국의 국내정치였지만 그 파장은 국제정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아직은 트럼프행정부의 어떤 외교를 펼칠지 아무도 모른다. 이제야 정부의 핵심 포스트에 사람들을 지명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마이클 플린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했는데, 아직도 국무장관, 국방장관 자리는 비어있다. 플린은 극단주의 이슬람을 미국 안보의 최대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매카 인사로 알려져 있어 얼마만큼 그가 아시아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될지 아직 알 수 없다.

가장 핵심 포스트인 국무장관 자리를 놓고는 미트 롬니와 줄리아니가 경쟁하고 있는데 이를 놓고 캠프 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미트 롬니는 줄리아니보다 외교문제에 대해 더 많은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합리적인 인사로 알려져 있으나 선거과정에서 트럼프후보를 맹공격했었다.

만일 그를 국무장관으로 지명할

경우 공화당 주류 기성정치권을 공격했던 트럼프의 입장이 후퇴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그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어 이 점에 대해 캠프 내 인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어찌되었든 국무, 국방 두 장관 자리가 누구에 의해 채워지느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안보팀 내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미국의 한반도 및 아시아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과정에서 약속했던 것들에 얼마나 강하게 집착할지, 아니면 유연성을 갖고 뒤로 물러설지 그것이 중요한데, 이는 지금 단계에서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내각이 후보 때의 발언에 충실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아시아 및 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첫째, 트럼프가 그의 발언대로 고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금융위기이후 미국주도 단극체제가 끝나고 서서히 진행되어왔던 국제질서의 다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물론 당분간은 여러 다극들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선도하는 다극질서로의 변화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한 다극화된 국제정치는 2차 대전 종전 이후 1991년까지의 양극질서, 1991년에서 2008년까지의 미국주도 단극질서보다 불안정적이기 쉬울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정치의 리더십의 공백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더 이상 그러한 리더십을 행사할 의지가 없고, 중국은 아직 중국 개별국가의 이익을 뛰어넘는 글로벌 리더십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미국이 동아시아의 안보 공약을 끝내고 그 결과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약화되거나 해체된다면 한국이나 일본은 핵무장을 본격적으로 고려

유지되어왔던 자유무역질서가 종말을 고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45% 관세를 매긴다면 중국이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리 없고 곧바로 보복할 것이다. 이는 세계 경제질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물론 이는 미중 양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세계 자유무역질서 속에서 무역주도 경제성장 전략을 펼쳐 성장해왔던 한국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는 가치보다는 이익과 거래 우선의 외교 기조를 펼칠 거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미동맹이라는 일종의 가치 동맹을 공유해온 우리 입장에서선 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방위분담금 인상이나 한미 FTA 개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북한 문제를 다루어나갈지도 의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2-3년 내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 경우 미국은 실질적인 급박한 안보 위협에 직면할 것이고, 그 결과 1994년의 1차 북핵 위기 때의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효과적인 제재를 통해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미국의 새 행정부가 얼마만큼의 관심과 에너지를 여기에 기울일지 그리고 중국의 협조를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때는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겠다고 말했고, 그랬다가 북한은 광적 집단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또 언젠가는 중국이 북한 문제를 맡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트럼프 후보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할지 아직 아이디어가 없다는 의미다. 북한은 나름대로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나오는데 미국이 이 문제를 임기응변적으로 다루어 나간다면 한반도의 불안정은 더욱 커진다.

국제정치 상황이 이처럼 예측 불허이고 불확실할

때 일수록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주도적으로 대북전략과 정책을 수립해서 사실상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리드해 나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만일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면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정부가 지금 큰 위기 속에서 일종의 국정공백 상태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하루 빨리 새로운 국정 운영팀이 들어서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에 대비해야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임기응변적 대북전략이 한반도 불안정 증폭시켜 우리 외교안보팀 강경하게 美 대북정책 리드해야

립주의 외교로 나아가는 경우, 국제정치 전반에 힘의 공백이 생길 것이다. 2차 대전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은 유라시아대륙을 유럽에서는 나토를 통해, 동아시아에서는 한미, 미일 등 양자동맹을 통해 양쪽에서 압박하는 전략이었다. 그런데 만일 트럼프대통령의 고립주의로 유럽에서 나토가 약화되면 러시아가 그 공백에 파고들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약화된다면 그 공백에 중국이 파고들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2008년 미국 발 세계

하게 될 것이다. 그 경우 동북아 안보환경은 훨씬 악화되고 이는 국제경제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쳐 미국 트럼프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경제적 이익 확보에도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둘째, 트럼프대통령이 실제로 보호무역주의로 나선다면 이는 국제경제 전반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무역파트너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고 곧바로 보복하고 나설 것이고 이는 결국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주도하에

반대를 위한 반대, 검증되지 않은 의혹만 난무

4조각 분열정국은 4색당파 콜라보

조선왕조의 역사를 한마디로 당쟁의 역사라고 규정하는 사가(史家)가 적지 않다. 연산군 4년인 1498년의 무오사화에서 시작해 장장 360년간 지속된 당쟁과 사화로 국론은 언제나 분열의 계 속이었다.

당초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던 파가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고 남인은 다시 청남과 탁 남으로 갈라진다. 인조반정 후 득세한 서인은 반 정에 공이 있는 훈서와 그러지 못한 청서로 나뉘 었다가 후에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진다. 이 와 같이 어지럽게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정쟁 은 서로 죽이고 유배 보내고 관직삭탈 등 극렬한 반목을 되풀이했다. 그렇게 파를 갈라 서로 피나 는 싸움을 벌인 논쟁은 국민의 복지나 국가의 이 득과는 거리가 먼 복상(服喪)문제와 세자 책봉 등 왕권의 계승문제였다. 왕의 상을 당한 모후 (母后) 대비의 복상이 기년(基年=1년)이나 3년 이나를 두고 싸웠으며, 왕후의 상을 9개월로 하 느냐 1년으로 하느냐를 가지고 목숨을 건 싸움 을 하다가 어느 한쪽의 주장이 채택되면 그 파가 세력을 잡게 되고 반대파는 살해 또는 벼슬이 삭 탈당했으니 놀라운 일이다.

이들 상호간은 날이 갈수록 더욱 편협해지고 배타적이 되어 협화 정신은 말살되었고 동족 간 의 대화의 장도 사라졌다. 빈번하게 권력의 실세 가 바뀔으로써 그때마다 유능한 인재 등용의 길 이 막혔으며 각파 간의 교류나 혼례조차 금기시 되었다. 그리고 정치는 부패해졌다.

국리나 민복은 간데가 없어지면서 민생은 도 탄에 빠졌다. 현금의 우리나라 정치의 실태나 국 민감정의 동향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이들 같으면 왜 이같은 장광설이 나오게 되었는지 쉽 게 짐작이 갈 줄로 안다. 국리민복을 외면하고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이기주의, 국론이라고 이름 부치기 어려운 문제를 마치 국 론의 주제인 양 정쟁의 이유로 삼는 요즘의 사회 현실, 정권유지와 정권정치를 위해서는 수단방 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풍토, 이 모든 현상이 옛 날 조선 당쟁의 영상과 흡사하다고 느껴지기 때 문이다.

요즘 항간에 국론 분열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 다고 듣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무슨 말썽이 될만한 꺼리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정치적 으로 이를 이용하려는 목적 아래 싸움의 불 씨로 삼고 있다는 데 에 이의를 달 사람은 적을 줄로 안다. 반대 를 위한 반대, 검증도

되지 않은 의혹만 제기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는 아무런 제시가 없는 정치적 관행, 일부러 말 썽을 일으키기 위해 내용을 과장하거나 없는 사 실까지 만들어서는 마치 나라 안에 큰 의견 분열 이라도 있는 것처럼 꾸미는 양상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된다. 이 같은 의견분열을 국론의 분열이라 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국론이란 나라 안의 공론(公論)을 뜻하는 말로 서 사회일반의 여론 또는 세론(世論)을 의미한 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공론이란 커먼 센스 (상식) 또는 양식(良識=건전한 사고방식이나 판 단력)에 바탕한 것이어야 하고 동시에 공정한 의 론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국론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을 때 요즘 이곳에 서 분열되었다고 말하는 국론이 과연 어떤 종류 의 국론인지 궁금해진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간



이 형

본회 회우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없는 사실 루머까지 뒤섞어
이게 진실 아닌가 과장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제시도 하지 않나

의 엇갈린 시각과 해결 방안을 조성하고 있는 세 월호 문제를 국론의 분열이라고 할 것인지 한 번 재고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시위 중 물대포 를 맞아 와병 끝에 서거한 백 씨의 일이나, 건국 절의 날짜 이슈를 둘러싼 의견 대립 등도 마찬가 지이다. 개천절 이슈는 양쪽의 의견을 공청회 등 갖가지 방법으로 절충을 해서 정하는 것이 옳고, 정 의견 타협이 안될 경우엔 표결로 작정하는 방 법도 있을 수 있다. 불과 몇 년 가지 못하고 국민 의 뇌리에서 사라지고 말 지엽적인 문제들을 가 지고 무슨 큰 국론 분열이나 있는 것처럼 말하는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짓고 싶어하는 주장 3) 사 드의 설치에 좋으나 우리 고장에 오는 것은 반대 한다는 지역이기주의적 반대, 4) 우리나라가 미 국의 핵방위 우산 아래 있으며 한·미 간의 군사 적 동맹 관계 등을 생각할 때 사드의 설치에 피 할 수 없는 일이며,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는 데엔 이론이 없으나, 그렇다고 유유낙낙으로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국민의 감정 을 봐서라도 일단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결 과적으로 국가이익에도 일치할 것이므로 일단 반대해놓고 보겠다는 파 등등이 있다. 여기서 우 리나라 국익에 유리할 것이라는 얘기는 한국국 민들이 사드의 설치를 최종적으로는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반대기세가 만만치 않음 을 미국에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전제 아래 앞 으로 있을 한국의 방위비 부담 등 협상에서 한국 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고 할 수 있다.

사드 설치에 찬성하는 측도 첫째로 우리나라 보위를 위해 두말없이 무조건 찬성해야 된다는 파와, 설사 약간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동북 아세 아에서의 한·미·일의 관계유지의 중요성을 생 각해서 잡음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 리하다고 보는 파, 받아는 들이되 중국과의 외교 적 경제적 교섭의 진행을 진행하면서 시기나 설 치장소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 등 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사드설치에 대한 찬·반양론이 갈라지 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것을 해결되기 어려운 국론분열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견 해도 만만치 않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자 신의 소신을 자유스럽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상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며 만약 다수의 의견이 설치를 찬 성하고 국방 외교상 그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 같은 결정을 정부가 국가 정책으로 추진한다면 그 같은 정부방침의 추진 은 국론으로 받아들여야 마땅한 것이 아닐까 한 다. 물론 국방 외교상 이유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근거 있는 이유를 내세워 압도적으로 이를 반대한다면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이를 조건 없이 나라의 공론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사드설치가 적어도 국가보위에 관 한 필수적인 것이라고 판명된다면 여론도 이 를 압도적으로 지지 할 것이 분명하고 그 같은 여론을 국론으로

밀고 나가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정부는 사 드의 설치가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는 것을 국민 에게 주지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고 설치 지지 우 세의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며, 또 그 것이 정부가 거쳐야 할 사드설치상의 순서라고 보는 것이다.

사드문제에서 보는 일정수준의 갈등은 어느 국가 어느 사회에서나 있어온 일이며 그것이 있 음으로써 오히려 올바른 여론을 수립하는 데 도 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함부로 아무 사안이나 국론이 될 만한 것이 아닌데도 국론인 것처럼 부추기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한 소재로 찬·반 양론을 생성해 국론 분열 운운이라고 주 장하는 짓은 모두들 삼가야 될 일이며, 또 국론 분열 문제도 너무 신경질적인 잣대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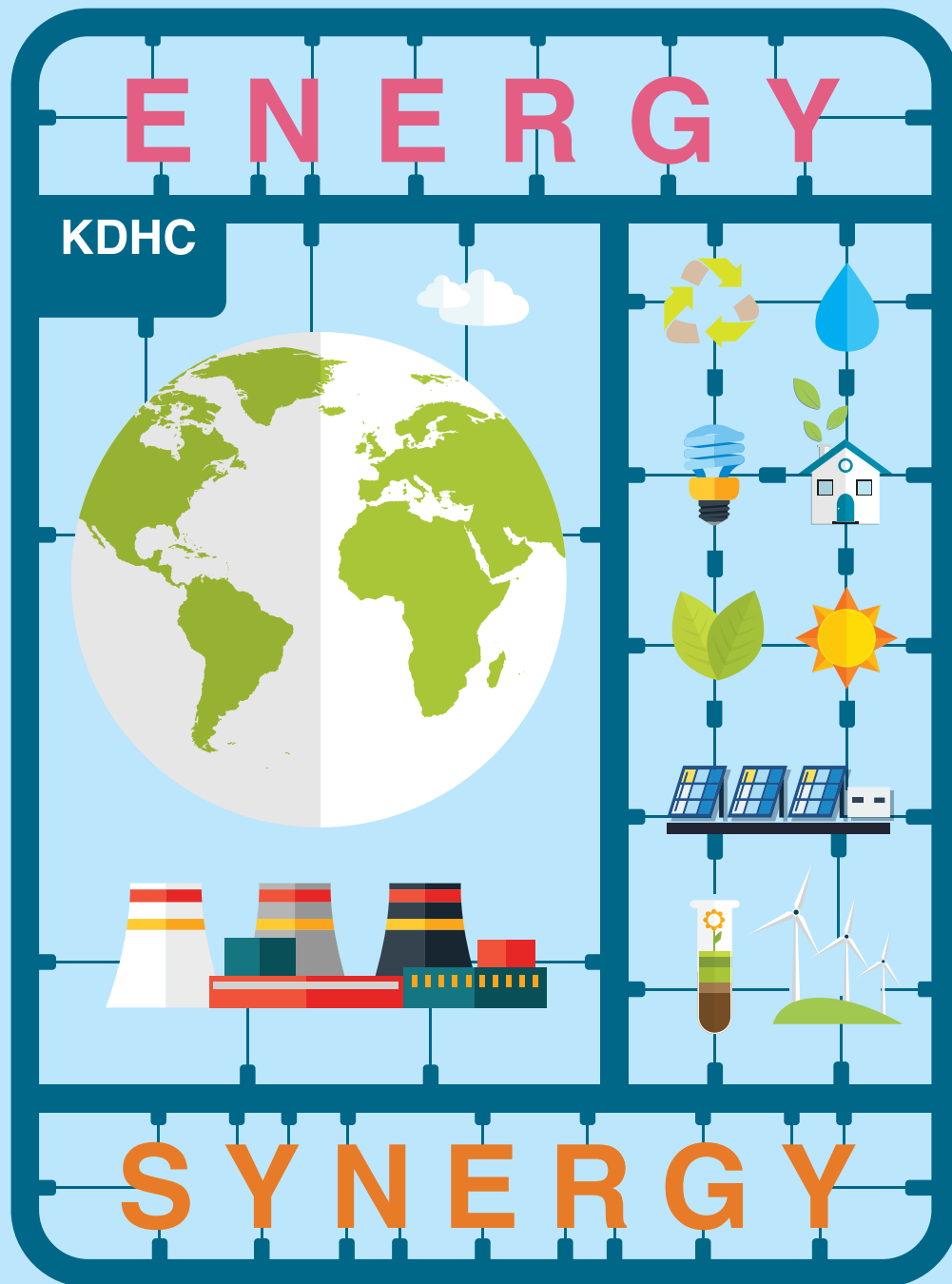
민주주의 앞세우며 당리 당락 위한 여론 몰아가 정쟁 빌미삼는 사회현실 조선 당쟁 형상과 흡사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문제 들의 대부분은 여러 정파가 정치적으로 이용하 려는 의도에서 쟁점화시키는 데 기인하고 있으 며, 그 내용인즉 국민 대다수를 편을 갈라 의견 대립으로 몰아갈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한다고 여 겨지는 것이다.

지금 한참 말썽이 되고 있는 사드설치 문제만 하더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 국론분열이라고 보 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사드의 국내 설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내용을 따져보면, 반대하는 쪽에 1) 핵무기를 가진 북 한과 대치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처지나 국제 정세 등에는 아랑곳없이 덮어놓고 사드설치를 반대하는 주장 2)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드 의 설치를 신중히 고려해야 되고 가능하면 설치



에너지가 될까요? 시너지가 될까요?



누군가 에너지 그 자체만을 향할 때 우리는 지구를 보듬는 에너지를 생각합니다
 누군가 에너지의 효율성만을 강조할 때 우리는 에너지가 만드는 따뜻한 세상에 주목합니다
 누군가 미래의 에너지만을 얘기할 때 우리는 에너지가 만들 더 큰 시너지를 계획합니다

에너지를 만들지 시너지를 만들지는
 결국,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THE PEN

3년 9개월 전, 2013년 2월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국민 모두 두 손 모아 기원했다. 이른바 민주화 이후 YS·DJ·노무현·MB 정권 20년 권력 핵심의 부정부패·무능·실정으로 국가기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600 원로 언론인의 모임인 '대한언론'은 박근혜 정부 출범에 앞서 '잃어버린 20년'을 뛰어넘기 위해 3당 통합 이후 만연된 한국정치의 구조적인 모순·무지·악습과 단절하는 대전환(轉換)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념·역사의식·도덕성·비전이 혼란스러웠던 MB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우선 국가정체성·통치철학·도덕성 정립



〈편집자의 편지〉

지켜보았던 이형·이상우·남시욱 회원의 특별 기고를 실는다.

국민을 분노와 실의로 몰아 넣은 최순실 게이트는 조선·중앙·한겨레 언론 3사가 앞장서 파헤친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미디어오늘은 "TV조선·한겨레·JTBC가 최고 권력을 무너뜨렸다"고 기록했다. 모금 의혹은

TV조선이, 최순실 비행에 대해서는 한겨레가, 최씨의 국정농단 고발은 JTBC가 기여했다. 남시욱 원로회우는 "청와대라는 최고 권부까지 무력화시킨 언론 3사 최순실 사건 보도는 우리 사회에 크게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

도덕성 각성이 시급하다

을 박근혜 정부의 제1과제로 제시했다. 대한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난맥·최악의 역사 교과서 보급 등을 고발하면서도 부패척결·박근혜 정부의 자주외교를 지지, 성원했다. 공모직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국사편찬위원장·정신문화연구원장·동북아재단이사장 등 국가정체성 정립에 앞장서야 할 요직 인선의 혼미와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대한민국사를 자학시(自虐視)한 최악의 국정교과서 보급에 대해 본보는 지속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2016년 송년회를 만들면서 대한언론 편집인들은 박근혜 정부의 배신으로 착잡한 심정이다. 12월호는 2016년 최순실 사태 정리를 위한 남시욱·송복 원로회우의 대담과 4·19, 5·16, 10·26참변을

정적인 보도, 언론재판, 피의 사실 검증 원칙, 무죄 추정 원칙 등을 무시한 최순실 사건 보도 행태는 문제"라고 남시욱 회우는 지적했다.

최순실 사건은 박정희 정부 사정팀이 적절한 시점에 고발한 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번진 사건이다. 최태민 사건을 보고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그놈의 자식 엄단하라"고 격려했으나 딸이 청와대 뜰에 나와 대성통곡하자 "에미 잃은 딸아이를 불쌍히 여기라"고 태도를 바꾸었다고 한다. 아버지 대통령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우리 사회의 파워엘리트의 모럴해저드가 최순실 사태로 표출된 것이다. 정치가는 물론, 국민의 도덕성 각성이 시급하다 하다는 소리가 높다.

박석홍 본회 편집위원장

알림

대한언론인회 송년회 12월 22일

대한언론인회는 2016년을 보내는 아쉬운 마음을 나누는 송년회를 다음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시 : 2016년 12월 22일 오후 6시
-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침술봉사 겨울철 쉽니다

한방 침술봉사는 혹한기를 피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쉽니다. 이후 내년 3월 셋째 목요일 오후 2시 재개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회우 칼럼 - 어제 오늘 사이

혜화동 성당 앞길에서 만난 천사

겨울이 시작되는 첫 날인 입동(立冬):(11월 7일) 해질 무렵, 혜화동 성당 앞길에서 나는 한 천사를 만났다.

그날따라 초저녁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데 겨울을 재촉하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칼국수 집에서 저녁을 먹고 대학으로 가기 위해 나오는 순간 가랑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빗방울이 굵어져갔다.

일기예보를 믿고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나는 학교로 가기 위해 비를 맞으며 성당 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가 심해지자 나는 비를 피해 성당 울타리 위를 덮고 있는 측백나무 숲을 우산삼아 그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한성대 부동산대학원 저녁 강의 시간이 오후 6시 30분에 시작되는데 이미 시간은 6시 15분을 넘고 있었다.

마침 그날은 퇴근시간이 겹치는데 닦은비까지 내려 빈 택시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이 태 교

전 한국일보·중앙일보 기자
전 한성대 대학원장

영겁결에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녀의 이름은 "김세진(?) , 마르티나"라고 했다. 우산을 나에게 주고고는 뒤 한 번 돌아보지 않고 그녀는 혜화동 로터리 쪽으로 종종히 사라졌다.

당연히 여벌의 우산을 꺼내 쓰고 갈 것이라는 나의 예상과는 달리 그녀는 코트 형태의 수녀 복을 입은 채 초겨울비를 맞으며 걸어

가는 것이 아닌가. 대학원 강의 시간에 쫓긴 나는 찬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그 광경을 떠 올리는 순간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 나는 이미 택시를 타고 학교로 향하고 있었다. 택시 안에서 정신이 버쩍 들었다.

"여벌의 우산이 하나 더 있다는 말은 혹시 내가 그녀의 호의를 거절할까봐 거짓말을 한 것이었구나".

찬비를 그대로 맞으며 갈 길을 재촉하던 아름다운 그녀! 정말 천사였다. 진정 그녀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말없이 실천하는 천

내게 자기 우산을 주고 비 맞으며 가버린 수녀

조바심을 내면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때 내 앞을 지나가며 나를 한번 쳐다보던 한 수녀가 한참을 길을 가다가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 나에게 왔다. "선생님! 우산을 챙겨오지 못하셨군요. 저는 우산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우산을 쓰시지요. 좀 낡기는 했지만 비를 피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가던 길을 멈추고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 순간 가는 방향이 같으면 동행해주겠다고 제의하기 위해 온 것이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다. 나의 예상은 빗나갔다.

그녀는 쓰고 있던 자기 우산을 두말없이 나에게 건네주는 것이었다. 첫 눈에 단아하고 아름다운 미모를 지닌 그녀는 어둠이 깔려 자세히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고 아름다운 수녀였다.

비를 피해야 하겠다는 생각에 잠겨있던 나는 망설임 없이 수녀의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더구나 우산이 여벌로 하나가 더 있다는 말에 한마디 사양도 하지 않고... 진지하고 다정한 그녀의 태도에 감동해서... 순간 너무나 고마워서 나는 내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네주고 성함을 물었다.

사였다.

기회만 있으면 남의 것을 하나라도 더 빼앗으려고 하는 이 삭막한 세상에 저런 아름다운 천사가 있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일생동안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인도의 성녀 테레사 수녀가 생환해서 한국에 나타난 것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그녀에게는 평소엔 늘상 해오던 아주 작은 베품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베품을 받은 나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선물이고, 엄청난 감동이였다.

"원손이 하는 것을 오른 손이 모르게 선을 베풀어라"라는 성경구절을 인용할 필요도 없이 작은 실천으로 모범을 보인 아름다운 한 수녀의 선행을 보면서 나는 다시 한 번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천사가 나에게 준 귀중한 선물, 그 작은 접이 우산을 나는 지금 나의 서재 서가에 고이 모셔 놓고 있다.

그녀의 심성으로 보아 혹시라도 먼저 나에게 연락해 올 것이라는 기대는 접어야 할 것 같고 언제 한 번 기회가 된다면 꼭 그녀를 찾아 만찬에 초대해서 그 아름다운 베품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싶다.

인생 노후설계 재테크 특강

소유 재산을 수시로 점검하라



홍용수

본회 회우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노후 자산설계 특강을 경청하는 회우들. 사진 : 박문두 본회 편집위원

대한언론인회 회원들 대상 홍용수 회우의 노후설계 특강이 지난 11월 3일 오후 2시부터 무려 2시간 동안 한국프레스클럽 12층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많은 박수와 노후설계 필요성에 모두가 통감한 홍 회우의 강의 내용을 간추려 정리한다.
다음 강의는 12월 8일 14시. - 편집자 주

1) 노후생활의 중요 관리 포인트

출산 절벽, 초저금리 1% 시대, 빈부 양극화로 중산층 붕괴, 대내 대외적으로 경제적 악재가 도사리는데, 평균 수명은 늘어 80대까지 일하고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7명은 노후생활을 두려워하는 실정이다. 100세 시대 長壽 리스크, 건강 리스크, 배우자·자녀 리스크, 재산 리스크 등이다. 따라서 배우자와 함께 노후설계를 빨리 보충할수록 도움이 될 것이다.

2)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수시로 점검하라

- ① 퇴직금과 현금 관리, 각종 연금은 제대로 입금되고 있는지 점검, 주택, 점포 등 수익형 부동산 관리, 비과세 금융상품은 한도까지 무조건 가입하라.
- ② 자신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관리하지 않고 무단 방치하면 소유권이 남의 자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전 관리가 꼭 필요하다(민법 245조, 246조).
- ③ 사기행위에 속지 말자.

3) 노후에는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 3가지 바보

- ① 부업은 하되, 사업은 하지 말라. 특히 창업(부업)은 서두르면 망한다.
창업은 종잣돈을 키우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 창업 문제를 생각해보자.
- ② 자식의 사업에 함부로 감투 쓰고 보증 서고 집을 담보해주는 행위는 삼가라.
- ③ 직접 주식투자는 삼가라.
- 세상에는 돈이 있어도 관리를 못하는 3가지 바보가 있다는 유행어

- ① 연금이나 수익형 부동산에서 매월 입금되는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주고 타 쓰는 사람,
- ② 재산을 부인(남편)에게 다 주고 타 쓰는 사람,
- ③ 재산이 아까워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다.
일본 NHK 다큐멘터리 방송에서 노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런 노후를 맞이할 줄은 몰랐다. "통장 잔고가 끝나기 전에 차라리 빨리 죽고 싶다" 전 일본 열도를 뒤흔든 충격적인 다큐멘터리, 노인들의 노후생활이 크게 걱정된다.

4) 금융상품 재테크

투자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눈높이를 낮춰라.
예) 주택마련 자금, 노후대비 자금, 자녀 학자금, 자녀 결혼자금, 부업 자금 등.

- (1) 재테크 방법
 - 예금자는 장차 금리가 상승 전망이면 만기는 짧게, 회전식 정기예금이 필요하다.
 - 비과세 상품은 적극적으로 가입하라.
 - 대출자는 부채관리에 신경, 장기 대출은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 펀드 가입자는 재무구조가 좋은 가치주 펀드에 가입하라.
 - 외화예금은 유학생 부모가 저가일 때 매입하

‘세상의 돈은 항상 돌고 돈다’...받을 준비를 하라 투자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서 눈높이를 낮춰보라

- 는 것이 바람직하다.
- 초저금리 1% 시대에는 세(稅)테크에 유의하고 물뽕투자는 피하고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 현금을 중시하는 유동성을 고려하여 관리해야 한다.
 - 경기전망 먹구름 시대, 자산가들은 수익보다 환금성, 안정성, 세테크에 관심이 많다. 최근 1순위 투자는 수익형 부동산, 상속·증여 문제에도 관심이 크다.
 - 생활에 도움되는 각종 연금 가입을 생각해 보라.
 - (10억원 만들기 도전) 1차 목표는 부동산 + 금융자산 = 10억 원 만들기 계획실천, 2차 목표는 부동산을 제외한 순 금융자산만 10억 원 만들기 계획 실천.
- #세상의 돈은 항상 돌고 돈다라는 생각을 하

오늘의 니대르

이홍우 (본회 편집위원·상명대 석좌교수)



면서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받으려면 돈을 모으고 발품을 팔아 정보에 밝고 투자능력을 키워야 한다.

- (2) 중요 금융상품 중 각자 노후생활에 필요한 상품부터 가입하라.
- ① 비과세종합상품 1인당 5000만원 이내
- ②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2017년까지 1인당 3000만원 이내.
- ③ 달러 투자 20% 정도 매입에 관심.
- ④ 회사 공모주에 관심.
- ⑤ 회사의 액면분할에서 한 때 아모레 주가 급등.
- ⑥ 배당주 투자는 수익률,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 ⑦ 장래 로봇 관련 펀드에 관심.
- ⑧ 주식투자는 증권 FIP를 만나 자문을 받고 개미가 왕개미를 이길 승산이 없으면 직접투자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싶다.
- ⑨ 부동산이 살아날 때 부동산 펀드, 리츠로 돈이 몰린다.

언론을 말한다

Inside Journalism

미디어

특검 진행...이제 방송은 어떻게 가야 하나

요즘 TV 드라마 PD들은 고민이 많다고 한다. 현실보다 더 재미 있는 드라마를 만들 자신이 없어서이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여주는 폭로와 부인, 그리고 반전, 민중 시위에 이르기까지 어느 PD가 이렇듯 장엄한 드라마를 연출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픽션은 현실을 따를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워터게이트보다 더 규모가 크고 심각한 권력의 추문이 되리라고 하는 한국의 '최순실 게이트'는 워터게이트처럼 언론이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경기자로서 링 위에 직접 올라온 사건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둘러싼 의혹을 TV조선이 최초로 터뜨렸고, 이를 받아 JTBC가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등이 사전에 최순실씨에게 넘어 갔다고 폭로했으며, 이를 다시 받은 TV조선은 최씨가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용 의상 제작을 지휘하는 영상 등을 공개해 정계에서 하야와 탄핵 요구가 터져 나왔고, 대통령은 국민에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11월 20일에는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이 사건의 공범으로 발표했으니 국가 최고 권력에 대한 언론의 폭로와 대통령의 무력화가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된 전례가 없다. 언론이나 권력이나 모두 가보지 않은 길로 나선 것이다.

이번 사태의 1등 공신은 종합 편성 채널이다. 우려와 기대 속에서 출범한 종편이 불과 5년 만에 기성 지상파 방송들을 제치는 엄청난 일을 해냈다. JTBC <뉴스룸>의 경우 시청률이 11월 16일 9%를 넘어 같은 날 SBS <8시뉴스>의 4.7%, MBC <뉴스데스크>의 4.1%를 더



유 자 효

본회 편집위원
전 KBS 파리 특파원

최순실 게이트에 종합 편성 채널이 맹활약
방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진실 캐는 용기 있는 보도 긍정적 시각에
무작정 흥분 경쟁적 선동적 토론 비판도

지 못했다. 또한 출연자들의 '알려졌다' '전해졌다' '정황을 포착했다' 식의 '카더라'식 화법과 무작정 흥분하고 보는 경쟁적·선동적 토론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었다. 그런데 이런 편성이 이번처럼 대형 사건을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린 11월 12일, 종편들은 낮부터 광화문 집회 현장 생중계 방송에 들어갔다. 스포츠 중계나 극의 중계도 아니고

결혼했어요' '무한도전' 등 예능과 드라마 '불어라 미풍아'를 방송했으며, SBS도 '영재발굴단 스페셜'과 '미운 우리 새끼 재방송' 등을 내보냈다.

집회 참여 인원도 서울의 경우 12일 주최 측 추산 100만명, 경찰 추산 26만 명이었는데, 방송에서는 '100만 인파'가 반복 보도되었다. 일본 언론에서는 12일, 19일 모두 경찰 추산 인원을 시위 참여자로 보도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종편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본다. 종편의 용기 있는 보도가 없었더라면 진실이 밝혀졌겠느냐고도 한다. 또한 국민의 주인 의식도 일깨웠고, 시위 문화가 성숙됐다는 평가도 있다.

요즘 방송 프로그램에는 '최순실 패러디' 바람이 거세다. '개그 콘서트'(KBS2), '무한도전'(MBC), '일요일이 좋다-런닝맨'(SBS)를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에서 갖가지 패러디들을 쏟아내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한반도의 북쪽은 세계 최악의 폐쇄 체제인데, 남쪽은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셈이다.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홍준표 경남 지사는 올해 초에 "종편 4개 중 2개는 없어져야 한다"는 독설을 퍼부은 바 있다. 엄성섭 종편 앵커는 "허탈감과 자괴감의 연속이다. 끝없는 최순실의 전횡도, 언론의 경마식 과잉 추측 보도도, 내 입으로 전해지는 각종 소식과 표현도, 그로 인해 벌어지는 각종 현상도, 무엇을 위한 것일까? 슬프다, 아프다."고 트윗에 올렸다.

이제 방송은 어떻게 가야 하나?

격동의 시대...나라가 있어야 방송도 있다

블 스코어로 압도했다.

종편의 보도가 이렇듯 큰 파급 효과를 내게 된 것은 지상파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보도 프로그램의 편성 덕이다. 뉴스 전달 위주의 기존 지상파들과 달리 종편들은 시사 토크 프로그램들을 대폭 편성했다. 이는 종편 초기 경영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적게 드는 토론 프로그램 편성으로 극복하려는 정황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그러나 지상파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시청률로 인해 종편의 시사 토크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끌

집회 현장을 오랜 시간 중계하다보니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토론자들의 발언 수위도 집회 인파가 늘어감에 따라 점차 높아졌다. 아직 검찰의 조사가 진행중인데도 출연자들은 현직 대통령을 부정직한 범죄자로 규정했다.

그날 지상파는 정규 편성을 유지했다. KBS1은 '한국인의 밥상' '나눔의 행복, 기부' '동행' 등이 방송됐으며, KBS2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불후의 명곡'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등 예능과 주말연속극을 예정대로 방송했다. MBC도 '우리

특별 검사의 활동이 시작되고, 대통령 탄핵절차가 진행되며,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가 일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법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 그리고 차기 대선 열기가 일찍 달아올라 것이다. 트럼프 시대의 국제 정세는 격동할 것이다.

이제 차분해질 때이다. 언론 본래의 자리에서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할 때이다. 방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나라가 있어야 방송도, 표현의 자유도 있기 때문이다.

이달의 보도사진

태풍 '차바'의

동아일보 박영철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제166회 이달의 사진상을 수상한 박영철 기자의 '태풍 차바에 휩쓸리는 극적인' 사진이



전남 여수시 오동도 방파제.

이달의 사실

좌편향 역사

정부가 국정(國定)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장관은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교과서를 만들었다"며 "국민 의견을 들겠다"고 밝혔다. 한민교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민주적 자유선거에 의해 수립된 국가"라고 유엔은 총회 결의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정부로 승인하였다"고 썼다.

검토본은 "우리 경제는 세계 평균을 크게 지속해 왔다"며 대한민국이 이론 발전을 펴고 국으로 성장한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민 대부분이 상식으로 알고 자부심을 느끼 구절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북한에 대해서는 주체사상과 자주 노선 도구로 활용했다는 것을 명시했다. 그런 균형 있게 서술했다고 볼 수 있다. "이승만 주의가 훼손됐다"고 했고 "(박정희의) 10월 권력을 강화한 독재 체제였다"고 했다. 4·19 등 민주화 운동의 성과도 다뤘다.

좌파들은 새로 나올 국정 역사 교과서에 라고 공격해왔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현대사의 긍정적 부분을 강조하고 그 그늘에 눈에 띈다. 정부가 1년 전 역사 교과서 국정화(左)편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일부의 권능이 붕괴되면서 야당과 진보좌파의 힘이 사라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교과서 근해 교과서"라며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을 제대로 읽어나 보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국면에 처하면서 논쟁 자체를 피하는 눈치

지금 분명한 것은 역사 교과서의 단일화 제대로 된 역사 교과서, 믿을 수 있는 교과 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야당으로 정부가 만든 교과서와 기존의 검정 책을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광장

Inside Journalism

언론을 말한다

에 휩쓸리는 극적인 순간

기자

spot news 보도사진상 에 동아일보 박영 순간을 선정했다.



교육 바꿀 가능성 보여준
새 역사 교과서

토본을 11월 28일 공개했다. 이준식 교육부
고 균형 있는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
고 밝혔다. 검토본은 "1948년 8월 15일 대
민국이 수립되었다"며 "우리 역사상 최초로
의미를 부여했다. 또 "1948년 12월 12일
를 한반도(코리아)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에 웃도는 7~10%의 경제성장률을 40년간
경가했다. 세계 최빈국에서 10위권 경제 대
주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가 유일하다. 국
고 있지만 검정 역사 교과서들에서는 이런

이 북한 3대 세습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한편 대한민국의 어두운 역사에 대해서도
정부의 독재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월 유신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

대해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가 될 것"이
그동안 검정 교과서들이 깎아내렸던 우리
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서술하려 한 노력이
정화를 추진한 것은 기존 검정 교과서들의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로 정
들의 공격을 무릅쓰고 국정화를 추진할 동
교과서는 박정희 대통령 치적을 강조한 '박
반발했다. 하지만 야당이 교과서 검토본
것인지 궁금하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 탄핵
다.

· 획일화엔 신중해야 한다는 국민도 정말
서로 우리 아이들에게 자긍심을 심고 역사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그런 공감대를 바
교과서들이 자유롭게 경쟁해서 국민의 선

(조선일보 11.29)

절체절명 국가위기에 언론이 할 일

신문시평



김 광 섭

본회 편집위원
전 중앙일보 편집국부국장

“이래도 물러나지 않을래?” 라고 묻듯
매일 대통령에 십자포화 퍼붓는 언론

소소한 것까지 시시콜콜 경쟁적 보도
촛불은 국민의 소리 바르게 승화돼야

대한민국호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다. 이제 대통령은 탄핵과 감옥의 길로 들어서는 기로에 서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건전한 상식도 모자라는 비루한 여인을 꺾어보지도, 관리하지도 못했다. 전문지식과 경륜 높은 인사들을 널리 초빙해 매일 식사라도 하며 의견을 경청하지 않았다. 장막 뒤에서 그저 직언할 해안도 모자라는 문고리 인사들의 말만 들었다. 이 모든 것에 대통령의 잘못이 크다. 그러나 그 잘못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리돼야 한다.

언론은 매일 대통령에게 용단폭격과 십자포화를 퍼붓는다. “이래도 물러나지 않을래?”라고 물으며... 최순실게이트를 파헤치는데 언론은 큰 역할을 했다. 각종 매체들은 뒤질세라 연일 이 보도로 도배를 하고 있다. 언론은 이제 사건의 큰 줄거리에서 결가지로 가는 미용, 의료, 신변문제나 소소한 가십성 이야기 꺼리까지 시시콜콜히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유죄판결이 나지 않은 사안을 단정적, 선정적, 경쟁적으로 보도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뉴욕타임즈는 펜타곤 페이지를 특종 보도했다. 두 신문사는 정확한 취재와 사실에 근거해서 기사를 썼고 선정, 선동적인 보도를 하지 않았다. 국정혼란 속에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 한국과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쥐고서 남한의 혼란을 즐기며 언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른다. 힘없는 국민들은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과는 관계없이 매일 생업을 이어나가

돈다” “대통령이 2000억원의 미용비를 썼다.”는 등 근거 없는 강성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이 큰 과오를 저질렀지만 그렇다고 야당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양 의기양양하게 행세하다가는 더 큰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문화는 ‘야3당, 퇴진구호 넘어 단일수습안 제시해야’라는 서설에서 “...더민주당의 반성이 시급하다... 길거리 시위에 앞장서는 것은 대의

좀 압축성장하라는 것이다...야당은 마치 자신들은 시민들의 합성에서 예외인 듯 착각하는 것 같다. 야당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치지만 그들이 바로 정권을 잇는다고 해도 지금의 정치후진성이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뜬금없는 소문을 발설해 국민을 동요시키는 야당 대표의 경직된 얼굴을 보면 그들도 시대착오적이라는 매한가지다.”라고 지적했다.

동아는 “야권, 잠룡에 휘둘리지 말고 ‘총리 후보’ 속히 추천하라”는 사설에서 “...대선 주자가 제시한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은 모두 헌법에 없는 절차여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야권은 대통령 제안대로 총리 후보를 추천하면서 헌법에 따라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총리를 추천하지도 않고 있으니 국민이 야권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정발목을 잡았던 정치권전체와 국회에 대한 개혁과 심판의 숙제는 아직 남아 있다. 촛불을 든 국민의 소리는 전반적인 정치발전으로 승화돼야 한다.

혼란의 소용돌이에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정치원로들이 최근 모임을 갖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미흡하다. 정파적 계산에 따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리를 높이는 경박한 목소리를 꾸짖는 결기 있는 인사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언론이 제몫을 할 수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이만큼이나 파헤친 것은 언론의 힘이 컸다 그러나 언론은 현재 어떤가.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하루하루 선동적이고 가십성 화제를 쏟아내기에 급급하다. 국

혼란 소용돌이...뜻있는 정치 층언 안 들려

야 한다. 이 무정부 상태의 혼란 속에서 어느 지도자가 키를 잡고 험한 파도를 헤쳐 나갈 것인가.

야3당과 여권 일부는 이제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야당은 이 국가적 위기를 정권을 잡을 호기로 보고 연일 대통령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과 총리 후보결정의 선후도 정당간 이해득실에 따라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연히 국정을 맡을 경륜 있는 총리 후보감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 제1야당 추미애 대표는 “계엄령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민주주의를 팽개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정농단이라는 위헌, 불법적 사태가 빚어졌다고 해서 그 대응마저 위헌, 불법적이어서는 안 된다. 대안 없는 투쟁을 일삼으면 민심의 화살은 언제나 방향을 바꾼다”고 경고했다.

박성희 이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는 조선칼럼에서 이번 평화적인 거리촛불시위를 ‘낙후된(정치)문화가 융성한(시민)문화와 충돌한 사건’이라고 했다. 또 “정부에 대해 시민들이 요구하는 건 무작정 ‘퇴진’이나 ‘하야가 아니냐 이제 정치도

가적 위기를 맞을 때마다 언론의 아쉬운 부분이다. 언론의 ‘냄비근성’은 변하지 않았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천편일률적으로 떠들지만 다른 사건이 터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것처럼 잊어버린다. 이번 기회에 언론도 크게 변하기 바란다. 곧 거리에는 세모의 모습이 보일 것이다. 구세군 냄비와 크리스마스트리, 근하신년의 메시지가 명멸할 것이다. 곧 새해가 밝는다. 그러나 스산한 찬바람이 부는 국민의 가슴은 누가 따뜻하게 덥혀줄 것인가. 낯선 네거리에서 국민들은 길을 잃고 있다.

조선일보 96년史…국내 최대 신문방송 역사기념관 한국언론의 魂이 숨쉬고 있다

조선 NEWSEUM

“조선일보 뉴지엄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인 조선일보가 걸어온 세월을 따라가며 신문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공간이다. 활자 하나하나가 모여 신문을 만들고 기사 하나하나가 쌓여 역사를 이루었듯 한 세기를 넘나드는 체험이 펼쳐진다.”고 유광선 관장은 강조했다.

뉴지엄은 총 450평 규모의 3층 건물이다. 조선일보 역사기념관(3층), 미디어 체험관(2층), 전시 공간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1층)로 구성되어 있다.

‘한글원본’은 국가문화재 지정

조선일보 역사기념관은 격동의 현대사와 신문의 과거 역사를 6개 주제로 구성하여 담아놓았다. ‘고난과 극복’ 코너에서는 1920년 일제(日帝) 때 창간한 조선일보 탄생과 함께 겪은 투쟁의 역사를 보여준다. 특히 조선일보가 펴낸 《한글원본》(1929년, 1930년)과, 《문자보급교재》(1936년)는 한글보급과 민족정신을 함양하는 데 큰 기여를 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아 2011년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일제 탄압에 저항한 항일 지면들, 6·25전쟁 중 피란지에서도 어렵게 펴냈던 전시판(戰時版) 등 현대사의 거친 소용돌이 속에서 언론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숭한 악조건과 맞섰던 흔적들이 살아 숨쉰다.

‘혁신’ 코너에는 1924년의 ‘라디오 시’ 협방송’부터 2010년 ‘스마트 페이퍼 개발’까지, 조선일보가 최초로 해낸 10가지 성공의 역사를 모아 놓았다. ‘스페셜’ 코너에는 이승만·윤보선·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명박 등 역대 대통령들의 휘호를 포함, 각계 명사들의 육필 원고들을 전시, 볼거리가 다양하고 풍성하다.

‘활자시대’ 코너는 1992년 9월까지 이어졌던 납 활자 시대의 축소판

컴퓨터, 스마트폰에 익숙한 학생들이 들어서마자 눈이 휘둥그레지는 곳이 있다. 바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조선일보 뉴지엄(Newseum)이다. Newseum은 news와 museum의 합성어. 2013년 조선일보 창간 93주년을 맞아 개관한 뉴지엄은 신문·TV·뉴미디어 등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조선일보 96년史와 한국 언론魂이 숨 쉬는 종합 언론박물관이자 교육문화시설이다.



유한준
본회 편집위원

이다. ‘조선일보 사람들’ 코너와 ‘역사적 보도’ 코너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대형 모니터를 짚어가며 역사적 순간의 조선일보 지면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꾸며놓았다.

‘조선일보의 캠페인’ 코너에는 창간 직후부터 펼쳐온 이웃돕기 운동을 비롯해 정보화·환경 분야에서 우리 사회를 선도하는 데 기여한 공익 캠페인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조선일보 1면이 전시되어 있는 벽면 한 쪽에는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통일 기원 프로젝트로 ‘원코리아 뉴라시아 자전거 평화 대장정’ 원정단의 장비 사진과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가 눈길을 끈다.

이중섭 화백 탄생 100주년을 맞아 마련한 ‘조선일보와 이중섭’ 특별 코너는 6개의 입체 기둥을 통해 민족의 화가 이 화백의 생애와 시기별



국내 최대의 언론기념관.

텔 콘텐츠를 형상화한 미디어 아쿠아리움을 연출한다. 방문객들이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웅장한 바닷속 영상을 보면서 정보의 세계로 들어간다.

HD모니터 30대가 연출하는 미디어 영상터널 웅장한 바닷속 실감하며 정보의 세계로 들어가

주요 작품 및 역대 이중섭 미술상 수상자들의 작품도 전시되어 있다.

국내 최초 ‘미디어 전문 체험관’

미디어 체험관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신문·방송 복합 미디어 체험관이다. 신문·방송기자가 되어 취재를 하고 기사도 작성하면서 실제 지면과 화면을 만들어 보는 공간이다. 미디어 체험관은 △미디어 영상터널 △기자연수실 △취재현장 △방송 스튜디오 △모바일 스트리트 △3D 영상관 △뉴스갤러리 총 7개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미디어 영상터널의 경우 47인치짜리 HD 모니터 30대가 디지털

기자연수실에서는 신문 제작 과정과 기사 작성법을 체험한다. 84인치 초과화질 TV와 모니터 일체형 최신 PC를 갖춘 기자 연수실에서는 자체 신문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기사를 작성한다. 주요 테마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사라지는 모습이다. 실제 모습과 흡사한 북극곰과 탐험기지의 연구원, 쇄빙선 ‘아라온호’ 모형이 설치되어 있다.

신문체험이 끝나면 뉴스 스튜디오에서 방송기자 체험을 한다. 앵커는 물론, 국회기자, 특파원, 기상 캐스터 등 다양한 역할로 뉴스를 진행할 수 있다. 영상 합성을 통해 학생들이 마치 현장에서 리포터를 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모바일 스트리트에서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언제든지 뉴스를 전송하고 볼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 최근 신설한 VR(Virtual Reality·가상현실) 코너에서는 가상현실 콘텐츠를

접할 수 있어서 신개념 뉴스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다. 3D 영화관에서는 3D 안경을 쓰고 ‘DMZ를 가다’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마지막 코너인 뉴스갤러리에서는 9대의 대형 모니터를 통해 뉴욕타임스 등 전 세계 주요 일간지 홈페이지와 신문 지면이 펼쳐진다. 미디어 체험관 밖 포토존에서는 기념촬영을 할 수 있다. 커다란 신문 지면에 얼굴을 넣고 기자 모습을 연출할 수 있으며, 취재 도구를 들고 있는 알록달록한 뉴지엄 캐릭터인 ‘뉴리’

와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뉴지엄 방문객들은 7개의 코너를 모두 거치면서 자연스레 신문과 방송 현장을 체험하고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개관 3년만에 4만 명이 체험했다. 외국인들도 조선일보 뉴지엄을 찾고 있는데,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11개국 학생들이 체험했다.

지방 학교와 소외 계층 학생들의 미디어 체험을 확대하기 위해 외부 기관의 후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중이다. 언론재단 후원 ‘1일 기자 학교’, 전경련 후원 ‘경제미디어 캠프’, 방일영문화재단 후원 프로그램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 학생과 장애 학생, 서해 낙도인 백령도 학생들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뉴지엄은 조선일보만의 역사기념관이 아니라, 민족문화와 언론 종합 박물관으로 수준 높고 다양한 미디어 체험 공간이 되도록 다방면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과거 100년의 발자취와 현대의 첨단 미디어 기술이 공존하는 조선일보 뉴지엄은 오늘을 넘어 미래로 달려가는 각급 학교 학생들이 역사의 바퀴를 힘차게 돌리는 역동의 체험 현장이며, 민족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미디어 종합학습 공간이 되고 있다.



조선일보 뉴지엄.

고려인들 한 서린 연해주

방송포럼 역사탐방단 러시아로 가다

통일을 염원하는 방송포럼 역사탐방단은 우리 선각자들이 나라를 위해 구국의 일념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연해주를 찾았다. 지난 10월 말, 역사탐방단 일행 21명은 양양 공항에서 오후 6시 반에 러시아행 비행기를 타고 1시간 30분 만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연해주)에 도착했다. 연해주는 우리나라 늦가을처럼 겨울이 막 시작되는 시기라 을씨년스럽고 음산했다.



김 휴 선

본회 회우
전 MBC보도부국장

최재형 선생 등 독립운동 투사들의 고장

호텔에 여장을 풀 일행은 다음날 아침 일찍 고려인들이 살았다는 '신한인촌'을 방문했다. 신한인촌은 러시아 극동함대 사령부가 있는 금각만 언덕배기에 있었다. 1863년 연해주에 한인들의 이주가 시작되면서부터 이곳에 신한인촌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조그마한 공원 철조망 안에는 유난히 커 보이는 하얀 비석 3개가 눈에 들어온다. 제일 큰 비석은 인구 5천만의 남한을 상징하는 비석이고, 그 옆 작은 비석은 인구 2500만의 북한을 그리고 우측에 비석은 해외 동포를 상징한다고 한다. 비석 주위에는 8개의 작은 돌이 하나씩 밑바닥에 원형을 그리며 박혀있다. 우리나라 8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

기념비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 "민족의 최고 가치는 자주와 독립이며 이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은 민족적 정신이라며...". 신한인촌은 소련의 강제 이주정책에 따라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신한인촌도 사라지고 '한민족연구소'가

1999년 3.1운동 80주년을 기념해 기념비를 세웠다고 한다. 일행은 묵념을 하고 다음 장소로 옮겼다.

망루에 올라 금각만을 내려다보았다.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바로 옆에는 큼직한 동상 두 개가 나란히 서 있다. 그리스에서 온 '끼릴신부' 형제라고 한다. 끼릴 신부는 760년에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이곳 러시아를 방문했다고 한다. 문자가 없는 것을 알고 이들이 그리스 문자를 참고해 만든 것이 오늘날 러시아의 끼릴 문자라고 한다.

일행은 다음 장소로 발길을 옮겼다. 이곳 우수리스크(Ussuriysk) '라즈돌리노예 역'은 1937년 스탈린이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출발지다. 고려인을 태운 열차는 밤낮없이 40일간을 달렸다고 한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린 고려인들은 병들어 죽고 신음했다.

가다가 죽은 시체는 초원에 그냥 버리고 떠났다고 한다. 17만 5천 여 명이 몇 차례 나누어 진행됐고 1만 1,000여 명 정도가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8개 지역에 분산해서 풀어줬다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특히 연해주는 독립운동 투사들의 고장이기도 하다.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의 대가인 최재형 선생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연해주 항일투쟁사의 정신적, 물질적 기둥이었다. 청진에서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가난에 못 이겨 이곳 연해주로 건너왔다고 한다. 선장인 양아버지를 만나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다. 열심히 공부한 덕택에 당시 소련 도지사 자리까지 오른다. 그러다 관직을 나와 회사를 차려 큰돈을 모으게 된다. 첫 번째 사업이 고속도로 공사였다.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많은 고려인들을 고용해 동포들을 가난에서 탈출시키고 재 결집을 이끌어 냈다. 이 때 한인들의 신문인 '대동공보'를 발간하는 등 독립운동에 밑바탕을 만들게 된다. 최재형 씨는 또 '독립운동회'를 통해 총을 구입하는 등 독립운동에 적극 나선다. 그렇게 해서 모은 군자금으로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 암살사건에도 뒷돈을 대게 된다. 그러다 1920년 4월 5일 지금의 자기 집에서 예고 없이 들이닥친 일본군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 그 후 이 집은 러시아인이 살고 있었으나 최근에 우리 정부가 사들여 박물관을 짓는 수리를 하다가 자금이 모자라 중단된 상태로 남아있다.

이상설 독립운동가의 순국 현장으로 가기로 했다. 한 시간쯤 갔을 까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 유

스탈린은 고려인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켜 이상설 선생 유해 뿌린 '수이푼' 강물만 유유히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생가

해비가 '수이푼' 강변에 쓸쓸히 서 있다. 일주일 전에 비가 와서인지 강물이 범람한 흔적이 여기저기에 남아 있다. 고종의 밀지를 받아 이준, 이위종과 함께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참석하려했으나 일본에 의해 거부당했다. 그는 조선과 만주를 넘나들며 이곳까지 와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했다. 그가 숨지기 전에 "내가 죽거든 나의 시신과 유품을 불태워 독립운동 활동지인 '수이푼강'에 뿌려 달라"는 유언에 따라 이곳 강에 뿌렸다고 한다. 지금도 강물은 말없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우리 한인들은 그래서 이 강을 '슬픈 강'이라고도 이름 붙여 부른다.



이상설 선생 유해비

이어서 우리는 발해 '술빈부'(발해시대의 지방 행정부)가 있었던 발해성터를 방문했다. 광활하게 끝도 없이 펼쳐진 초원이 마음을 울적하게 만든다. 인적이라고는 없다. 이 땅은 원래 우리 발해의 땅이었다. 18C에 영국과 중국이 '아편전쟁'을 일으켰을 때 구 소련이 중재를 했고 이것이 바로 '베이징 조약'이었다. 소련이 중재 역할을 한 댓가로 중국에서 받은 땅이 바로 연해주 땅이다. 말하자면 중재를 하고 수수료로 받은 셈이다. 어느새 하루해가 마감이 돼 온다. 비는 내리고 을씨년스럽다. 우리는 연해주에서 하바로스크를 가기위해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12시간을 달려 먼동

이 트는 아침 7시 10분경

에 하바로스크에 도착했

다. 열차는 옛날 우리 무

궁화호 침대칸을 연상하

면 된다. 서양인들의 역한

냄새에 밤새 잠을 이룰 수

가 없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7박 8일간을 달려 모스크바까지 가는 열차다. 모스크바에서 유럽 가는 열차를 바꿔 타고 스페인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한다. 러시아의 파리라고 하는 하바로스크 역에 내렸다.

영하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간간히 비까지 내려 바람과 함께 무척 추웠다. 겨울옷을 준비해 간 터라 두껍게 옷은 입었지만 옷깃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은 어쩔 수가 없었다. 블라디보스톡은 영상이었으나 하루 밤 사이에 하바로스크는 영하라 기온차이가 컸다.

일행은 역전에서 아침을 한식으로 하고 중앙시장과 레닌광장, 혁명광장 그리고 정교회 등을 둘러보고

'아무르(Amur River)강'을 관람했다. 아무르 강은 크고 장대했다. 아무르 강은 몽골에서 발원해 3개국을 거쳐 전장 4350Km를 흘러 오즈크해로 흘러간다. 2001년 8월 김정일이 왔다갔다는 표지판이 세찬 바람에 흔들거린다. 특히 겨울철이면 철새들이 우리나라와 일본에까지 날아와 겨울을 나고 날씨가 풀리는 봄이 되면 다시 아무르 강으로 날아간다. 먹을 것이 풍부하고 여름 한철 철새들이 서식하기에는 그만이라고 한다.

아무르 강변의 한 숙소를 잡았다. 강 위에 떠 있는 달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새벽 풍경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기자는 史草를 쓰는 史官

혼돈 정국과 맞물린 격동의 현대사 조명

대한언론인회(회장 이병대)가 출간한 '명기자, 명데스크 못다한 이야기33 취재현장의 목격자들'이 화제다. 올해 원로 언론인들로부터 새로 받은 원고 17편으로 제1부를 구성하고, 그동안 출간된 5권에서 가려 뽑은 16편으로 제2부를 구성했다.

유자호 본회 편집위원

제1부는 기고자들이 다른 사건 사고의 발생 연대순으로 배열해 취재 현장에서 본 한국의 현대사와도 느낌을 준다. 첫 머리는 이 구열 전 한국근대미술연구소장의 '한국 언론사의 첫 기자 위창 오세창(葦滄 吳世昌)'으로 장식됐다.

1886년 한국 최초의 근대적 신문인 한성순보(漢城旬報)의 창간 기자 오세창 선생에 대한 전기적 기록이다. 이형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쓴 '24 파동과 24 회'는 1958년 12월 24일, 국회의사당 정문을 폐쇄하고 야당의원들은 지하식당에 연금한 채 자유당 의원들만으로 국가보안법 등 27개 의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24파동의 취재기이다.

최서영 전 코리아헤럴드 사장의 '내가 본 역사의 여울목'은 1960년 4·19로 탄생한 제2공화국의 혼란상과 베트남 취재기,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참석했던 충남 당진의 KBS 단파방송 송신소 방문을 다뤘다.

황대연 전 대구경제 편집국장 대리의 '박정희 대통령의 왼쪽 가르마'는 사진 제판의 실수로 대통령의 사진이 뒤집혀 나와 법석을 떨었던 1964년 경의 에피소드를 다루었다.

신경식 헌정회장의 '판문점 취재기'는 1967년 이수근 북한 로동신문 부사장의 탈출 기록이다. 이경문 전 문화체육부 차관의 '우리나라가 처음 환경보호에 나설 때'는 1970년 동아일보의 천연기념물 보존과 생태에 관한 10회 특집 취재기이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치 하의 개헌 칼럼'은 1974년, 서울신문 편집국장 시절에 쓴 '유신 2년 유감'과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삼았던 유신 시절을 다루고 있다. 신동철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월간중앙 자진 정간되던 날'은 1977년 한완상 교수의 '가짜와 위선의 출세주의' 게재에 따른 필화 사건이다.

김진현 전 과학기술부 장관의

대한언론인회 '취재현장의 목격자들' 출간

'서울언론문화클럽과 김우중·대우조선'은 1977년 김우중 대우회장의 지원으로 만들어보고자 했던 서울언론문화클럽이 좌절된 전말과 이후의 대우사태를 다루고 있다.

백환기 전 동아일보 편집위원의 '시베리아에서 귀환한

KAL 승객'은 1978년 파리를 떠나 앵커리지로 향하던 대한항공의 보잉 707 여객기가 국교가 없던 소련의 무르만스크에 불시착한 사건이다.

강용식 전 국회 사무총장의 '응답하라 1983'은 북한 조종사 이웅평 대위가 MIG 19기를 몰고



명성그룹의 비화, 삼성이 자동차 사업을 접게 된 전말, 곁에서 본 호암 이병철 회장과 이견희 회장, 언론사 사장단의 북한 방문 등을 다루었다.

신대근 전 MBC 파리 특파원의 '평양 1985년 그리고 2016년'은 북한 취재경험

을, 정용석 전 KBS 런던 특파원의 '도전의 연속, 걸프전 취재'는 1990년의 전쟁 취재 경험을, 유재철 전 세계일보 주필의 '두 대통령에 대한 질문'은 1999년 김대중 대통령과의 만남과 2002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남을 다루고 있다. 이밖에 조원석 한서대

였다. 선정 기준은 기록의 가치가 높은 내용들이며, 수록 순서는 1권에서 5권까지 발행 순에 따랐다. 그 내용들이 자못 흥미진진하다.

신동식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의 '문화재 취재길에 만난 윤백영 할머니와 황 선생님'은 조선조의 마지막 상궁들과의 만남을, 심상기 전 경향신문 사장의 '군사정권과 중앙정보부'는 언론통폐합과 취재 비화를, 윤양중 전 동아방송 보도국장의 '역사적 특종 이승만 박사 망명'은 익명의 제보에 의한 대 특종기를, 금창태 전 시사저널 사장의 '평양에서 만난 세 여인들의 추억'은 배우 문예봉, 몽양 여운형의 셋째 딸 여연구, 지리산 빨치산 이현상의 딸 이상진과의 만남이다.

정성진 전 기자협회장의 '한국기자협회와 나'는 계엄사에 연행돼 당한 무참한 폭행을, 한기호 한국전문신문협회장의 '장도영 장군 50일'은 5·16과 장도영의 부침을, 고학용 전 언론재단 이사장의 '경주 천마총에 얹힌 추억'은 낙종 수습하러 갔다 얻은 천마도 특종 이야기를, 김영택 전 동아일보 기획위원의 '5·18 취재 수첩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다'는 당시 광주 참상을, 이밖에 김집 전 TBC 논평위원의 '판문점 13년 이런 일 저런 일' 등은 모두 보기 드문 취재 경험담이다.

이흥기 전 KBS 파리 총국장의 '프랑스에서 되찾은 우리 역사'는 역사적 성과이며, 권기진 전 서울신문 출판본부장의 '통한의 참변, 버마 아웅산 사건 특종기'는 처절한 현장의 기록이다. 고바우 김성환의 '나를 옥죄던 괴청년'은 시사만화가의 생생한 경험담이며, 노재성 전 국민일보 부사장의 '경찰 따돌려 찾아낸 정인숙 사건'은 역사적 증언이 된다.

백승대 전 KBS 촬영기자의 '10·26현장 그때 그 사람'은 TV 촬영기자의 귀한 취재담이

며, 홍인근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의 '빛바랜 취재수첩에서'는 정주영 씨의 정치 참여 비화 등을, 김한길 전 영남일보 정치부장의 '김영삼 대통령의 추억'은 기자와 정치인의 오랜 인연을 그리고 있다.

이 33건의 글들을 관통하고 있는 정신은 기자는 사초를 쓰는 사관이라는 것이다. 어려운 시대를 투철한 기자 정신으로 살아낸 명기자 명데스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취재현장의 목격자들' 출판기념회 후 본회 임원과 필진들의 기념촬영. 사진 : 이철영 본회 편집위원

박정희 마지막 행적 등 취재수첩 속 秘話 가득

휴전선을 넘어 귀순한 사건과 138일 동안 전국을 울음바다로 만든 그 유명한 이산가족찾기 방송, 중국 공군 조종사 손천근이 미그 21기를 몰고 귀순한 '실제 상황', 탑승자 269명 전원이 사망한 KAL기 격추 사건, 그리고 아웅산 참사가 모두 1983년에 일어났음을 밝히고 있다.

김경철 전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 사장의 '그룹의 뒤편길'은 1985년에 해체된 국제그룹과

교수의 '신원특이자'는 그야말로 한국적인 현실을, 홍원기 전 한국일보 감사의 '신문 배달 소년에서 발행인으로'는 한 원로 언론인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다루고 있으니, 이만하면 언론인의 눈으로 본 우리 현대사라고 할만 하지 않은가?

제2부는 그동안 발행된 '실록...언론, 언론인의 길 그때 그 현장 못다한 이야기' 전 5권에 수록된 글 가운데 16편을 가려 뽑

대한언론인회 2016 대한 언론상 시상

동아일보 특별취재팀

“총선 이후! 이제는 경제다”



국가적 현안 집중조명 대안 제시

심사평

심사위원장 유재철 본회 부회장

2016년도 대한언론인회 제정 대한 언론상은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이 선정, 11월 28일 수상했다.

심사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 대한언론인회 회의실에서 심사위원회를 열고 동아일보의 특별기획 시리즈, ‘총선 이후! 이제는 경제다’가 단연 돋보인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취재 보도한 동아일보 편집국 특별취재팀을 올해 대한언론상 취재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심사에는 우수한 작품들이 다수 출품됐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동아일보 산업부와 경제부, 국제부, 정책사회부 소속 기자 14명으로 구성된 특별취재팀이 4월 총선 직후 ‘산업대개조’란 국가적인 현안에 집중 조명하면서 대안을 제

시하려고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을 수상자로 결정하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그만큼 취재팀의 기획력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무게는 압권이었다.

심사위원회는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이 경제의 위기국면이 총선 정국에 가려지고 정부 정책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방대한 기획 시리즈를 통해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다시 떠오르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심사위원들은 “이전까지 파편적으로 다뤄졌던 구조조정 관련 기사들을 단순히 묶는 수준을 넘어 국내의 현장을 취재하고 전문가들의 대안을 집중 소개함으로써 파급력을 키웠다”는 취재팀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이 보도가 정부와 다른 매체 등에 끼친 파급영향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 다각 추적

수상소감

김차수 동아일보 편집국장

존경하는 이병대 대한언론인회 회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언론인 여러분,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이 연재한 ‘총선 이후!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2016 대한언론상 수상작으로 선정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상을 받았다고 마냥 기뻐하기에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동아일보 보도로 보여드린 오늘날 한국 경제의 현실이 너무도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언론들이 총선 이후 정국의 향후 움직임과 소모적인 여야 정쟁에 초점을 맞출 때, 동아일보는 한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눈을 돌려야한다는 선배 언론인들을 비

인 산업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치권은 물론 정부조차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든 내 임기 동안은 버틸 수 있겠지’라는 안이한 계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꼽혔던 조선, 해운, 철강 등 이른바 주력 업종들은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국책은행이 관리했던 국내 최대 조선회사는 비리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본보 보도 이후 뒤늦게나마 산업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의 감시견’으로서 국가 경제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문제 제기를 한 것에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작금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와 민생에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기사를 발굴하기 위해

‘사회의 목탁으로 나라발전 이바지’



롯한 지식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대선전 본격 개막까지는 아직 1년 넘게 남아있던 그 때가 한국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부터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본격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잘한 것에는 박수를 아끼지 않는 정론직필의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언론인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大韓言論 일반독자 정기구독 시행

명기자 명데스크 출신 언론인 600명이 쓰는 정론지

대한언론인회는 전직 명기자 명데스크 출신 언론인 600여명의 협회로서, 월간 회보 ‘大韓言論’이 편집 스타일과 내용면에서 획기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독자들의 요청으로 발행 부수를 늘리는 동시에 비회원 일반인의 정기구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누구든 본회 회우를 통하거나 직접 구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회우들께서도 주변 지인들에게 大韓言論 구독을 권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접 수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405호실, 대한언론인회
전화 02) 732-4797, 4798, 이메일 kjc1405@hanmail.net

△구 독 료 : 연 3만원.

△입금계좌 : 농협 056-01-105628

회우들이 펴낸 신간

국가발전과 대통령 리더십

이병국 지음



〈국가발전과 대통령 리더십〉은 대학에서 대통령 리더십을 강의하고 있는 저자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국정운영에서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였는가를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 분석한 것이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에서 제18대 박근혜 대통령까지 11명의 최고 통치자들은 8·15, 6·25, 4·19, 5·16, 10·26, 12·12 등 수많은 역사의 굴곡을 거치며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좌우가 대립하는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였고, 전쟁에서 나라를 지켰으며 가난으로 실의에 빠져있던 국민에게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었다.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 팔면서 중공업을 육성하여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 데 기여한 것도 이들 대통령들이 앞장서서 만들어온 공로이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많다. 국정운영에서 나타난 업적만큼 실정도 있었고 뒤끝도 깨끗하지 못했다. 건국의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통해 그토록 염원했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선적 리더십으로 망명길에 올랐다. 산업화의 주역은 초헌법적 독재로 부하의 총탄에 죽었으며,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 출신의

대통령들은 부패 혐의로 감옥에 가고 민주화의 상징인 두 대통령은 친·인척비리 문제로 법정에 서야 했으며, ‘국민이 대통령’이라며 몸을 낮추었던 대통령은 가족들의 금전에 얽힌 도덕성 실추로 스스로 목숨을 던지기도 했다. 아버지의 대를 이은 현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하야 압력을 받고 있다.

이 책은 대통령 한 사람이 국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시대는 지났다는 관점에서 각 대통령들이 핵심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했던 정치 철학과 사상의 사례를 중심으로 리더십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 본 대통령들의 국정운영 리더십을 너무 단순화시킨 아쉬움을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들의 가족, 교육, 개성과 기질, 청년시절의 해외여행, 언어구사력 등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리더십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레이몽 아롱은 “내가 드골 대통령과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대통령의 성공은 국민의 성공이다. 성숙한 국민 없이 위대한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은 없다.

저자는 한국경제 홍콩특파원, 부국장, 한서대 교수 조빙교수.

한서대학교 출판부 280쪽 13,000원

대한민국 부패진단서

김상수 지음

최순실의 부정부패와 파렴치한 국정 농단이 온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권의 실세가 되어 전횡을 자행하면서 이권을 따내고 부(富)를 축적한 무리들에게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김영란법 시행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의 발돋움을 하는 다소나마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 발간된 이 책은 우리나라의 부패를 저지른 정치권과 정부관리, 그리고 기업들의 비리를 재조명하고 원인을 분석한다. 그리고 성찰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앞으로 적극적인 보도를 통해 부패를 고발해 줄여나간다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갈 것으로 작가는 진단한다. 언론의 역할은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16년 OECD 34개국 중 9번째로 부정부패가 많은 나라로 꼽혔다. 세계 경제포럼(WEF)이 해마다 발행하는 세계경쟁력보고서를 통해 받은 초라한 성적표이다.

이 부끄러운 성적표에서 기업과 개인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국가 예산을 좌지우지하고 정치권에서 전 방위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최순실 쓰나미가 재발하지 않게 한다면 우리나라의 GDP는 1.4% 올라간다고 저자는 단언한다.

안기부의 두 얼굴, 대한민국 부패사, 비리 국회의원, 비리 공무원 등 4개 분야로 나눠 부정부패사를 파헤치고 비리 방지대안을 제시했다.

저자는 KBS문화과학부장, 부산보도국장, 9시 뉴스 편집주간, 강릉·대전방송 총국장, 국제방송국장을 역임했다.

한국언론인협회 208쪽, 9,900원

지방 소식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시상

새출발 희망 실직 조선업 직원들 지원

제21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11월 15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농업 발전 유공 농민과 공무원 단체 33명에게 시상하고 우수농산물 전시회를 열었다.

수상자는 진주 구기태씨, 산청 강기홍씨, 진주 유재하씨, 진주 박주현씨 등 4명.

이 중 창의력 부문의 강기홍씨는 비만과 당뇨에 좋은 오곡 현미빵을 제조, 그 원료인 오곡믹스로 빵 제과 바게트 등을 만들어 미국 LA 등에 수출을 시작한 농민이다. 그 원료는 쌀 70%에 잡곡을 믹스한다. 강기홍씨는 10년간 연구를 거듭한 끝에 성공했다. 그는 “예전에는 쌀과 밀가루만 섞었는데 글루텐 성분을 줄이고 쌀 비율을 최소로 적절히 맞춰야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경남도는 농촌의 의료 교육 문화를 지원해, 도시민과 농민이 찾게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고 말했다.

이 행사에서는 경남의 대표 농산물 브랜드인 ‘브라보 경남’ 선포행사도 가졌다. ‘브라보 경남’으로 최우수상은 거창의 ‘밥맛이 납니다’ 우수상은 산청의 ‘지리산산청 메뚜기 쌀’이 수상했다.

한편 경남도는 전국 일자리 실적평가 최우수상을 받고, 상금 2억 원으로 새출발을 희망하는 실직 조선업 직원들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11월 19일 창업 노하우가 축적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 박람회를 열고 130개 부스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경남도는 이외에 나노융합산업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나노산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17일부터 이틀에 걸쳐 ‘제3회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를 위해 11월 17일 나노분야 국제협력활성화를 위해 유럽 나노기술 연구소인 ‘프랑스 미나텍’과 경남도, 밀양시, 경남테크노파크가 공동 연구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폭풍아 불어라

이근량 지음

이근량 회우가 망팔(望八)을 맞아 남기고 싶은 그 동안의 기억들을 정리하여 ‘폭풍아 불어라’는 자전(自伝)을 출간했다.

저자는 ‘책을 엮으면서 되도록 진실에 가깝도록 노력했음을 자랑하고자 한다’고 밝혔듯이 대부분의 자전(自伝)들이 저자의 자랑만 늘어놓는 것과는 달리 진솔하게 모든 지난날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삼밭골’에서 태어나 한강으로, ‘자식자랑 삼대기’, ‘1970년대 해외특파원’, ‘내가 만난 사람들’, ‘군대, 배구 그리고 술 이야기’, ‘하늘로 쏘아올린 화살’, ‘산에서 내려오는 길목에서’, ‘말, 열, 탈, 돈 그리고 빛’, ‘청산을 바라보며’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이 책의 말미에 책명을 ‘폭풍아 불어라’로 정한데 대해 ‘어차피 다가올 운명이라면 더욱 힘차게 헤쳐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서’라고 밝히면서 질풍경초(疾風勁草) ‘폭풍이 불어야 역센 풀을 안다’는 말처럼 스스로를 시험하고자 한다고 덧붙인다.

예사롭지 않은 경험들을 멋진 글로 채워져 책을 잡으면 놓기가 쉽지 않다.



비매품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게 되면 으레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며 근황을 물어보게 된다. 서로 반가운 얼굴로 웃음을 띠면서 위아래를 살펴본 다음, “얼굴 괜찮아 보이는데 무슨 비결이라도 있느냐”고 서로 묻기를 반복한다.

이제 80을 넘기고 보니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그전 같지 않아 옛 동료들을 만나는 일이 드물어지고, 모처럼 만나게 되더라도 이런저런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기약 없이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나는 지금까지도 젊었을 때 시작했던 테니스를 꾸준히 계속하는 바람에 주변 동호인들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여유시간을 무료하지 않게 보내고 있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여기고 있다.

내가 테니스 라켓을 잡기 시작한 것은 30대 중반인 1970년대 초였으니, 다소 늦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적성에 맞았던지 꾸준히 계속한 덕분에 지금까지 라켓을 놓지 않고 있다. 그 무렵

경향신문에는 7명의 동호인으로 구성된 세븐클럽이 있었다. 상위 수준급의 이종전씨, 김성림씨와 중위 수준의 장대원씨, 서동구씨, 박강지씨, 오익환씨, 새로 입문한 본인이 매주 일요일 효창구장의 언론인 코트에 모여 1대1로 싱글게임을 하루에 6번씩 강행하는 바람에 헤어질 때는 녹초가 되어 귀가하

주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라켓을 내려놓고 산책 등 가벼운 운동으로 전환하라는 권고를 자주 해오고 있다. 실제로 젊은이들과 테니스를 치다보면 순간에 숨이 차오르기 마련이고,

곤 했다. 그 덕에 왕 초보였던 나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서게 되었고, 70년대 중반에는 전국 언론인 테니스 대회에 출전하여 서너 차례 우승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그렇게 열심히던 세븐클럽 멤버들이 80년대 들어 뿔뿔이 흩어져 각자 다른 동호인 클럽이나 동네 테니스장으로 나가게 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김성림씨와 본인 정도 남아 있다가 2010년대에는 김성림씨마저 테니스에서 손을 떼는 바람에 나만 남아 있게 되었다.

70여세까지는 괜찮다 하더라도 80세를 넘어서까지 테니스 라켓을 쥔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테니스 치는 남자

살며 생각하며



윤상철

본회 회우
전 경향신문 주필

무리하게 공을 쫓다보면 넘어질 뻔한 고비를 맞기도 한다.

그러나 테니스가 갖고 있는 그 나름의 오묘한 맛을 쉽게 저버릴 수가 없어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 힘이 약해져 볼을 세게 치지는 못하지만, 코트의 전후좌우로

볼을 안배하여 상대방을 이리 뛰고 저리 뛰게 만들면서 결정구를 날릴 때의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요즘은 집 가까운 보라매공원 테니스코트에 나가 젊은이들의

력이 엇비슷한 그곳 동호인들과의 친선 게임에 몰두하고 있다. 목동 코트에는 금년 100세를 맞으신(1017년 생) 정태화 어르신께서 매주 2~3일씩 나와 70~80대 회원들과 두 차례씩 게임을 하고 있다.

테니스를 이제 그만둘까 하고 망설이고 있던 차에 그 어른을 만난 다음부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연령에도 테니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일본에는 백세 넘는 테니스 애호가들이 있다는 말은 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정 어르신을 모시고 테니스를 즐기고 있다는 것이 대견스럽게 여겨졌다.

목동 코트에는 그분 말고도 94세의 김재욱 웅이 나오시고 있는데,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시니어 테니스 대회에 빠짐없이 참가하고 있으며, 코트에서는 80대 후배들을 직접 코치하기도 한다.

연령의 벽을 허물고 있는 그분들의 경기를 볼 때마다 과연 나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테니스를 저렇게 계속할 수 있을지 자문해 보기도 한다.

뱃새가 황새의 흉내를 낼 수 없듯이 그분들을 따라가기는 어렵겠지만 당장 테니스 코트를 떠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조만간 80세 이상이 참여하는 시니어 대회에 한번 참여해 볼 생각이다.

목동코트 진풍경...라켓 잡는데 나이가 따로있나 100세 어르신 · 90대 코치 · 80대 시니어들이 함께



KBS사우들이 모여 독서로 친목을 다지고 있다.

회사를 떠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감정은 메마르고 정서는 고갈되어 가는 것을 느낀다.

촉촉한 감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순간에 KBS 전 사우회장 김수웅 회우의 제안으로 KBS 사우회는 등산이나 낚시·바둑 등의 친목 모임이 아니라, 책읽기를 통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서함양을 드높인다는 목표 아래 독서토론회를 발족시켰다.

이름하여 <독서토론위원회>가 탄생된 것이다. 책은 생각의 샘물이라 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듯 독서

책 벗삼아 삶의 진리 터득하고 우애도 다져

토론회의 발족은 가뭄 끝의 단비처럼 책을 벗삼아 삶의 지혜도 터득하고 서로간의 친교도 다지는 소중한 모임임에 분명했다.

뜨리는 장소가 되고 있다. 독서토론회는 첫 작품으로 이지성의 <리딩으로 리드하라>를 시작으로 영원한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논

이색모임

KBS사우회 독서토론위원회

‘책은 생각의 샘물’

회원들은 책이 인간정신과 존재가치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고 규명해주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특히 인문학을 통해 자연의 섭리를 배우고 문화적 자긍심을 깨우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이면 3년 차가 되는 독서토론회는 매 격월 두 번째 금요일 3시부터 KBS별관 사우회 회의실에서 열리는데, 스물 다섯 명의 회원이 모여 지적 호기심과 불꽃같은 열망을 터

어)를 비롯해 <인문학 명강의> 등·서양편 <징비록> <정도전을 위한 변명> 등 인문학 명저와 최인호의 <꽃밭>, 박범신의 <소금>, 천순천의 <청일전쟁> 등 화제의 작품을 고루고루 섭렵했고 지난 11월 열다섯 번째 작품으로 송복 교수의 <특혜와 책임>을 선정해 토론을 벌였다.

독서토론회는 지난 해 박석무 다산연구소이사장을 초청해 “다면적 인간 다산 정약용”이란 주제로 북 콘서트를 KBS 라디오와 공동으로 열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새해에는 <명작의 고향 탐방> <저자와의 대화> 등을 기획해 회원 배가운동을 펼칠 예정이며, 그동안 발표되었던 회원들의 독후감을 책으로 엮어 출판할 계획이다.

김선옥 본회 편집위원

나는 침술이 좋다

신체 손상주지 않는 으뜸 대체의술

의술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중 한의학에서도 으뜸으로 꼽는 침술은 때로는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한다.

최근 유럽, 특히 프랑스나 독일 등지에서 침술에 대한 인기가 많다고 한다. 침의 장점은 첫째 신체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고 환부를 치유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아픔이나 통증을 느끼기 전에 아픔이 바로 사라지게 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래서 침이 대체의술로 으뜸으로 평가를 받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침술은 학술적인 배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경험과 경륜을 통해 터득하고 습득하나 기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최근 잠을 잘못 잤는지 목 부위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움직임이 둔탁하고 머리를 옆으로 돌

리면 작지만 통증이 따르기도

하고 목 부위에 뻣근함을 자주 느낀다.

나는 침술원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다. 당연히 그를 찾아야 했지만 조그마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생각 끝에 대한언론인회가 마련한 두나미스 침술 의료봉사단을 찾게 되었다.

시작 1시간 전에 도착했는데도 벌써 많은 회원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대부분이 원로 회원들. 기대 찬 눈망울들을 보면서, 순간 봉사단 이분들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나는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차례를 맞았다. 간단한 나의 설명을 듣고 시작된 치료는 불과 10분만에 끝났다.



조규만

본회 회우
전 한국경제 기자

그런데 신기하리만치 뻣근한 통증이 사라졌다. 참으로 신기했다.

나는 평소 침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나는 40여년의 직장 생활을 끝내고, 친구를 따라 내 고향이 아닌 타향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 타향에서의 외로움은 한 사람의 친구로는 부족했나 보다. 그때 우연찮게 만난 친구가 시각장애인 침술인이었다.

나는 많은 것에서 살갑게 대해주는 그에게서 정을 느꼈고 그 친구 덕에 타향에서의 외로움을 많이 달래기도 했다. 그와는 삶에 대한 대화가 통했고 또한 기회마다 그의 눈이 되어주면서 함께하는 친구들의 우정 또한 빛나보였다. 그는 70년대에 우리나라 시각장애인회를 이끌기도 한 바 있다. 그 당시 정계나 재계의 많은 분들이 그를 찾을 만큼 유명 침술인이었다.

지금도 그를 찾아주는 많은

방문객 가운데는 그 시절 사람들의 모습이 종종 눈에 띄기도 한다.

그가 오늘이 있기까지는 기르던 금붕어가 죽어 안타까워하는 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30여분에 걸쳐 지압과 침술을 통해 그 금붕어를 살려낸 것이 계기였다고 술회한다. 그때부터 지압과 침술을 병행하는 침술인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지금도 찾는 많은 환자분들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경이롭다.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퇴직언론인들의 건강을 보살펴주기 위해 매월 봉사해주시는 두나미스 의료봉사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두나미스 침술의료봉사단 노고에 감사

회우 부부 백내장 수술기

친구얼굴 깊은 주름살도 보여



장석훈

본회 편집위원

몸이 열냥이면 눈이 아홉냥이란 말이 있다. 그만큼 눈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장기이다. 약 30~40년 전만 해도 백내장수술이 흔하지 않아 백내장으로 실명하는 분들도 있었다.

지금은 아주 간단하고 쉽게 안과에서 수술을 해서 밝은 세상을 바라 볼 수 있다.

내 경우에도 언론계에 몸담으면서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때가 종종 있었다. 활자를 다루다 보니 50대에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쓰면서 안경은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활자를 들여다보다가 불편하면 안경 도수를 올려 새로 맞추곤 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안경점에 안경을 맞추러갔다가 시력검사를 하는 데 백내장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드디어 내게도 올 것이 왔구나! 싶었다.

마침 대한언론인회에서 GS안과와 제휴하여 실비로 백내장 수술을 해준다고 하여 안과를 방문하고 수술일정을 잡았다.

안과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여러 번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고 다음날 수술을 받았다. 수술시간은 15분 정도였지만 눈은 신체 부위에서 민감한 부분이라 속으로 많이 걱정을 하였다. 수술시간은 짧았다. 나는 새로운 빛을 찾았다.



이정희

장석훈 회우 부인

나에게 안경은 생활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물건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을 방문하여 책을 빌려다 보는 것이 나의 취미이다. 그런데 최근에 눈이 너무 나빠져서 음식을 만들 때 특히 나물을 다듬을 때는 돋보기를 항상 끼고 일을 해야만 했다. 사람이 눈이 나빠지면 평소에 하던 일도 게을러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대중대중 해버릴 때가 많다. 보려고 하는 것만 보고 나머지는 무시해 버린다.

대한언론인회에서 가족도 실비로 백내장수술을 해준다고 하여 수술을 받았다. 안과에서 지루할 정도로 꼼꼼하게 여러 번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고 다음날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에 세상의 빛이 그렇게 달라 보일 수가 없었다. 빨간 빛깔은 내가 생각했던 빛깔과 달랐고 친한 친구의 눈동자 빛깔이 노란 색을 다시 보았다. 그리고 부엌이 그렇게 지저분 하다는 것도 새삼 알았다. 눈 수술 후에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청소를 열심히 해서 집안은 더욱 깨끗해졌다.

그런데 동년배 친구들의 깊은 주름이 너무 잘 보여서 한편으로는 슬펐다. 이제 바늘귀도 더 잘 꿰 수 있고 책을 읽기도 좀 더 수월해져서 생활이 편리해진 느낌이다. 대한언론인회와 GS안과에 감사드린다.

시니어 건강 리포트 ⑤6

전립선 암 치료

신중하게 결정해야



이광영

본회 회우
한국골든에이지포럼 이사

전립선암은 발견 즉시 곧 바로 치료에 들어가기보다 지켜보며 어떤 치료를 할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 학술지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은 최근 대규모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로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 발견 즉시 방사선 또는 수술 치료를 하는 것이나 치료를 하지 않고 계속 추적관찰을 하는 것 사이에 사망률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없다는 영국 브리스톨(Bristol) 대학 도노반(Jenny Donovan) 사회의학 교수의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도노반 교수는 다른 장기로 퍼지지 않은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후 어떤 치료 방법이 가장 우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50~69세의 영국 전립선암 환자 1,600명을 무작위로 ①치료 없이 면밀하게 지속적인 추적관찰 ②방사선치료 ③수술치료 등 세 그룹으로 나누어 10년을 추적 관찰하였다.

그 결과 면밀하게 관찰한 그룹에서 545명 중 33명, 방사선치료를 한 그룹에서 545명 중 16명, 수술을 한 그룹에서 553명 중 13명이 전이(轉移)되었다. 관찰그룹에서 치료그룹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을 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추적관찰기간 동안 17명의 환자가 사망했는데 이도 세 그룹 모두에서 사망률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도노반 교수는 16년 전 이 연구를 계획할 당시보다 세 방법 모두에서 10년 생존율이 치료 방법과 관계없이 99%로 높았으며 국한된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경우 급하게 서둘러 치료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치료방법이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버드 의과대학 방사능 종양학과 다미코(Anthony D'Amico) 교수는 이에 대해 전립선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중 심장병이나 뇌졸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라면 계속 면밀한 관찰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고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조절 약 정도만 복용하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면서 다른 두 가지 치료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권했다. 이유는 면밀한 관찰을 주로 하는 환자에서 큰 차이는 없다 해도 암의 전이가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외과적인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 암의 전이는 높지 않지만 외과적인 처치를 할 때 요실금 부작용이 있으며 방사선 치료를 할 때 대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인생 2막

孝사상 보급 함양 여생을 바치리



권혁승

본회 회우
전 한국일보 상임고문

백교문학회 회장 권혁승 회우

(전 서울경제신문 발행인, 한국일보 상임고문)

우리의 전통사상인 사친사상(思親思想)을 함양하고 세계화하기 위해 권혁승 회우가 지난 10년 간 진력해오고 있다. 권 회우는 고향마을에 사모정(思母亭) 공원을 사재로 조성, 강릉시에 헌정하고 효를 주제로 한 문학작품을 공모, 시상하는 백교문학상을 제정해 올해로 일곱 번째 시상식을 가졌다.

글 : 이형기 (전 한국일보 문화2부장)

고향 강릉 위해 사재로 공원 조성해 시에 기증

‘효사상의 세계화’에 발 벗고 나선 원로언론인 권혁승 회우(84)를 강원도 강릉시 사모정공원에서 만났다.

권 회우는 효사상 전파 사업에 나서게 된 계기로부터 말문을 열었다.

“한국인의 정신문화이자 전통 사상인 효의 참 모습을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세태를 보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국인에게 효는 미덕이었고, 기본예절이었습니다. 부모님 공경을 최상의 가치로 여겼고, 3~4대(代)가 한 집에 모여 사는 대가족제도에 행복해 하던 한국인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효사상이 날로 퇴색되어 이제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이 안타까워 고향 마을에 부모님들의 쉼터로 사모정공원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전통사상인 사친사상(思親思想)을 함양하고 세계화하기 위해 권혁승 회우가 지난 10년 간 진력해 오고 있다. 권 회우는 고향마을에 사모정(思母亭)공원을 사재로 조성, 강릉시에 헌정하고 효를 주제로 한 문학작품을 공모, 시상하는 백교문학상을 제정해 올해로 일곱 번째 시상식을 가졌다.

2008년 1단계 공사로 사모정공원이 효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이어 올해는 2단계 효사상 세계화를 위한 확장공사를 마무리해 역시 강릉시에 헌정했다.

두 차례의 공사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고, 한국의 효사상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효사상 세계화의 발원지-孝鄉 江陵’이라고 새긴 대형 오석석조물(높이 3m, 너비 4m)과 모자상비(母子像碑)를 설치했다. ‘효사상을 세계로’라는 제목의 오석비 비문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돼 세계인에게 한국의 효사상을 일깨우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사모정공원 확장에 맞춰 사친 사상의 문학화·세계화를 위한 문학지 《思親文學》을 창간, 사모정공원을 사친문학의 요람



10월 7일 사모정공원 확장 준공식에서 권혁승 회우(오른쪽 맨 앞)와 내빈들이 ‘효사상 세계화의 발원지-孝鄉 江陵’ 비석 제막식을 갖고 있다.

으로 자리 잡게 했다.

권 회우는 사모정공원을 “사친시를 읽으며 부모님의 사랑과 은공을 회상하는 쉼터”라고 했다. 자녀에게는 부모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신혼부부에게는 아기에겐 효를 일깨우고 사랑으로 키우는 태교의 성지(聖地)가 되고, 나아가 효사상을 세계인의 가슴에 심어주는 공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덧붙인다.

권 회우가 사모정공원을 조성하

‘思母亭’ 정자의 현판뿐만이 아니다. 공원 내에 설치한 석조물에 새긴 ‘思親文學의 搖籃’, ‘효사상 세계화의 발원지-孝鄉 江陵’, 그리고 올해 창간한 문학지의 제호 ‘思親文學’도 모두 권 회우의 붓 끝에서 나왔다. 해서(楷書)체로 쓴 ‘思母亭’은 미려하면서도 힘차고, 중후한 멋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확장한 공원에 설치한 31t의 석조물을 선정 조각하기 위해 충남 보령의 석재공장을 10차례나 방문했다

‘한국 효사상 널리 퍼지면 우리 문화영토도 넓어져’ 사친사상 문학화·세계화 위한 잡지 ‘思親文學’도 창간

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년여의 준비 끝에 공원을 조성, 우리나라 전통양식의 정자를 세우고 ‘思母亭’이란 현판을 걸었다. 한국 정자의 건축양식을 온전하게 살리기 위해 전국의 정자를 두루 답사했고, 현판의 글씨를 쓰기 위해 70대 중반의 늦은 나이에 서예공부를 시작했다. 부모님을 만나고 생각하는 사모정공원 조성에 대한 권 회우의 집념이 얼마나 강고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고 한다.

사모정공원은 올해 2단계 확장공사를 마무리했다. 1단계 사업이 애향심과 효사상의 함양이라는 소박한 뜻에서 시작되었다면 2단계 사업은 효사상의 외연 확대, 세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할 수 있다.

‘효사상 세계화의 발원지-孝鄉 江陵’이라고 새긴 대형 오석석조물 우측에는 아기를 업은 어머니를 그린 오석 모자상비가 서 있어서 전형적인 우리 어머니들의 자식 사랑 모

습을 떠올리게 한다.

공원 좌측에 자리한 높이 4m의 ‘모정의 탑’, ‘효심의 탑’은 이곳을 찾는 내·외국인에게 가족사랑 정신을 일깨워주고 있다. 사모정공원은 강릉으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의 필수 답사 코스가 되었고, 외국인의 발걸음도 잦아져 이제는 효의 성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권 회우는 사모정공원을 모태로 ‘백교문학회’를 창립하고 2010년 백교문학상을 제정, 해마다 어버이를 그리는 우수문학작품(시·수필)을 공모·시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앞서 2015년에는 젊은이들에게 사친사상을 일깨워주고 한국의 효사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효 주제의 글 모음집 『세상의 빛, 어머니 사랑』을 만들어 국내 200여 도서관에 비치했고, 이 책의 영문판 ‘The light of the world, Mother's Love’는 6개월에 걸쳐 전 세계 65개국 130개 도서관에 보내 비치, 열람토록 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세계 80개국 IOC위원 114명에게도 전달, 한국의 효사상이 올림픽정신과 함께 인류문화발전에 기여토록 했다.

사모정공원이 있는 헨다리 마을은 우리나라 화폐에 초상화가 들어 있는 현모양처의 사표 신사임당과 효심이 지극했던 아들 이율곡이 태어난 오죽헌과는 같은 울타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 불과 1.2km 거리로 승용차로는 2~3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이다.

지난 10월 7일 사모정공원에서 백교문학회가 제정한 제7회 백교문학상 시상, 사모정공원 확장 준공 및 강릉시에 기증하는 헌정식, ‘思親文學’ 창간기념식이 함께 열렸다.

최명희 강릉시장은 축사에서 “전국에 226개의 시·군이 있으나 사업가·정치인도 아니면서 고향을 위해 사재를 들여 공원을 조성하고, 효사상 함양을 실천하는 분은 원로언론인 권혁승 선생이 유일하다”며 “신사임당이 이율곡의 손을 잡고 개천을 따라 대관령 옛길로 올랐던 오죽헌과 사모정공원 사이의 길을 ‘어머니의 길’로 명명하겠다”고 했다.

권혁승 회우는 강원도 강릉에서 출생했다. 한국일보 기자로 입사해 편집국장을 3회(한국일보 2회, 서울경제신문 1회) 역임하고 서울경제신문 발행인, 한국일보 상임고문을 지냈다. 수필가, 서예가, 백교문학회 회장, 《思親文學》발행인이다. ‘헨다리’는 흰다리 백교(白橋)의 강릉지방 방언으로 白橋는 권 회우의 아호이다.

회우동정

청류회 인천시티투어



김현(전 KBS, 방송연 구 실장)회우 : 11월 8 일 인천에서 회장을 맡고있는 청류회 회 원들과 인천시티투 어를 가졌다.

함경북도지사 최근 퇴임



박기정 (전 동아일보 편 집국장, 전 한국언론진 흥재단 이사장)회우 :

그동안 맡고있던 함경북도지사 에 서 최근 퇴임했다.

경향 OB산악회서 감사패



지용우(전 경향신문 논설실장)회우 : 11 월 3일 경향 OB산 악회 창립20주년을 맞아 강원도 설악산 만경대 기념행사에서 그동안 산 악회 발전에 큰 공로를 인정한 전회원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받았다.

신입회우 환영합니다



이충남 1943년 6월 13일생

주소 : 서울 강북구 노해로 33길 14(수유동)
전화 : 집 : 994-1106, 핸드폰 : 010-7712-3881
이메일 : choong3881@hanmail.net

<경력>
한국일보 기자, 동아일보 편집위원, 심의위원,
동아꿈나무재단 사업국장



김기경 1939년 5월 19일생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801-88
전화 : 핸드폰 : 010-5615-0123

<경력>
소년동아 기자, 동아일보 편집국 편집위원

언론가 소식

서울언론인클럽 언론상 시상

서울언론인클럽(회장 강승훈)은 11월 10일 제29회 서울언론인클럽 언론상 시상식을 프레스센터에서 가졌다. 영예의 수상자 7명은 다음 같다.

- 한길상 (김성우 전 한국일보 사장)
- 이름 빛낸 언론인상 (안병훈 '통 일과 나눔'재단 이사장)
- 국제 교류 언론인상 (임덕규 월 간 '디플로머시' 회장)
- 언론학술상 정진석(한국외국 어대 명예교수)
- 원론언론인 특별상 곽찬호 (대

한언론인회 기금관리위원장)

- 향토언론인상 부임준 (제주신 문 발행인)
- '한국의 열' 선양상 무라카미 '유학자 강항 발자취' 저자)

올해의 방송기자상 시상식

한국방송기자 클럽 주최 2016 올 해의 방송기자상 시상식 겸 송년회 가 12월 9일 오후 5시 한국프레스센 터 20층 국제프레스클럽에서 열린 다. 방송의 뉴스, 기획, 지역, 뉴미디 어, 영상, 특별 부문에서 탁월한 기 자들을 선발, 시상하며, 송년회는 5 시부터 진행된다.

사우회 소식

12월 13일 정기총회 겸 송년회

동우회

동아일보 동우회는 12 월 13일 오후 6시 세종 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정기총회 겸 송 년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약 300 여명의 회우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12월 9일 송년회

경향사우회

경향사우회(회장 이원 창)는 12월 9일 오후 5

시 30분 경향신문 본사 앞 이따리아 노 뷔페에서 송년회를 갖는다.

구상금 청구 2심 서울경제 항소 기각

한우회

서울경제가 한국일보 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서울경제의 항소 가 기각됐다는 소식을 회보 11월호 1 면 톱으로 다뤘다. 한편 12월 5일(월) 오후 6시 프레스 센터 19층 매화홀 에서 정기 총회 겸 송년회를 갖는다.

◀ 주소 변경 ▶

안중화 회우 = 서울 도봉구 도당로 31길 51 대원제니스빌 302호

이용권 회우 = 서울 중구 다산로 36길 110 신당푸르지오A 109-1501호

김광섭 회우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113번길 15 LG빌리지 2차아파트 208동 2006호

이세환 회우 =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92 주공아파트 807동 207호

▶ 회우 경조사 ◀

결 혼

전우벽 회우 = 장남 결혼 11월 26일 연합웨딩홀 아가페홀

김 현 회우 = 장남 결혼 11월 26일 연합웨딩홀 아가페홀

김지용 회우 = 차남 결혼 11월 26일서초동 성당

김용발 회우 = 딸 결혼 2017년 1월 7일 잠실 롯데월드 쇼핑몰 3층 전통혼례장

부 음

이흥우 회우 = 11월 20일 부친상

입회비 · 연회비 내주신 분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2016. 10.20 ~ 11.20)

▶ 연회비

김영호 (17), 정운중 (16.17)

익명 3만원(코리아 포), 이상호 (16)
조원석(16)

▶ 입회비

이충남 50만원, 김기경 50만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정원 회우 별세



이정원(전 한국일보 홍보부장)회우가 11월 7일 급환으 로 별세했다. 감기 증세가 악화돼 병 원으로 가던 중 별세했다. 향 년 69세.

1972년 한국일보 수습 27기 로 입사하고 사회부 외신부에서 필명을 날리다가 일간스포츠 야구 담당 기자로 근무하다 가 다시 한국일보 홍보부장으로 회사 홍보에 일조했다.

문준철 회우별세



문준철 (전 제일경제 부사장)회우가 11월 15일 오후 오랜 지 병으로 투병 중 별 세했다.

문 회우는 1932년생으로 연세

대경영대학원을 수료한 후 산 업경제신문 기자로 입사, 부국 장대우 경제부장을 지냈다. 경 제전문지 기자로 자리잡은 그 는 이후 내외경제 편집국장, 제 일경제 부사장을 지내고 언론 계를 떠나 사업가로 변신, 원풍 섬유 부회장, 원풍 인텍스 부회 장을 지냈다.

이육용 회우 별세



이육용 (전 동아일 보 교열부장)회우 가 11월 20일 지 병으로 별세했다.

43년생으로 향년 73세. 1969년 동국대 경제학 과 졸업 후 한국일보 교열부 기 자로 입사, 이후 동아일보 교 열부로 옮겨 교열부장, 편집위 원을 거쳐 98년 다시 문화일보 편집위원으로 근무하다 2004 년 퇴직했다.

정정 : 취재현장의 목격자들 필자 신경식 회우는 전 중앙일보 정치부장 이 아니라, 전 대한일보 정치부장으로 정정합니다.

월간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李炳大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李享淑
- 주필 林鍾乾
- 편집위원장 朴錫興
- 편집국장 崔命宇
- 발행처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1405호 (프레스센터)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회우들의 연회비와 찬조금이 언론인회를 활기 있게 끌어갑니다

본회, 중앙추모공원과 30%할인 계약

‘그날’ 이후 당신의 永眠 더욱 편안히



추모공원묘지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언론인회 이병대 회장은 10월 9일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소재 중앙추모공원 사무실에서 이진경 추모공원 사장과 대한언론인회 회원에게 추모공원 이용 특별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 계약에 따라 대한언론인회 회원은 이 추모공원을 이용시 대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고 부부가 함께 이용할 때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 문을 연 중앙추모공원에는 납골당을 비롯, 최근 유행하고 있는 잔디장 및 수목장을 갖추고 있는데 위치와 장례방법에 따라 1인당 1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가격이 다양한데, 기존 추모공원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서울시청에서 80Km지점에 위치해 있어 자유로로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약 70분 소요된다. (031-833-7737·아래 회보 광고 참조)



자연을 벗삼은
영혼의 안식처

7천평의 넓은 대지에
잔디장, 수목장, 봉안당
모두 갖추어진
국내 최초, 최대의
친환경 추모공원입니다.

대한언론인회 회원에게 착한 가격으로 제공!!

영혼의 평안함이 함께하는 **중앙추모공원**



봉안당



수목장



잔디장



고객상담전화

031-833-7737, 7738

주소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백석리 313-1(마유로 58-38)
E-mail : cmp5838@naver.com / Fax : 031-835-7737

친환경 로하스로 헬스 & 웰빙
ILDONG 일동후디스

첨가물 없는 진짜 그릭요거트
함께 즐겨요

후디스 GREEK



인공첨가물 없이 그리스전통 홈메이드 방식으로
제대로 만든 후디스 Greek 요거트~
떠먹는 그릭요거트에 이어 간편하게 마시는
그릭요거트도 국내최초로 선보입니다.
아침대용식이나 영양간식으로 건강하게 즐기세요

유청을 짜지 않는 농축방식 우유 본연의 영양이 풍부한 유청을
짜버리지 않는 농축방식으로 만들어 단백질은 물론 칼슘도 2배!
영양손실이 없어서 더 좋아요

후디스 GREEK

• 주문 및 상담: 02)2049-2000 www.foodis.com